



**대전교육청, 노사합동 나무심기 행사 가저**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제73회 식목일을 맞아 29일 오후 2시, 대전평생학습관(중구 대흥동 소재)에서 설동호 교육감을 비롯한 노조위원장, 시교육청 직원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식목행사는 영산홍 650, 꽃잔디 1,000여본을 식재해 학부모, 시민들이 자녀교육 및 평생교육을 위해 즐겨 찾는 대전평생학습관에 녹색환경을 조성하고, 나무심기의 중요성과 자연보호 정신을 되새겼다.

## “대형 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들, 파견직원 인건비 100% 부담”

### 중소기업 영업담당자 500명 대상 설문

대규모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관측 행사를 위해 해

당 업체에 파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100% 부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납품한 중소기업 215곳은 평균적으로 16개 지점에 파견직원(상시·임시에 월평균 25명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총 인건비는 월평균 4200만원이었다.

납품 중소기업들은 판매사원을 파견해 매출이 증가하면 유통업체 역시 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인건비를 25%정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형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파견한 것으로 보고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체는 중업체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납품업체의 자발적 파견 요청’ 등 예외를 두고 있다.

납품기업이 재고 부담을 떠안게 하는 백화점의 매입체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제품을 외상으로 매입해 판매하고 남은 재고를 반품하는 특정 매입이 절반쯤(48.8%) 차지하고, 백화점이 재고 부담을 떠안는 직매입은 8.7%에 불과했다.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은 평균 29.4%(신세계 30.0%, 현대 29.4%, 롯데 29.0%)로 조사됐다. 신세계 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42.0%, 현대백화점은 생활용품·주방용품 부문에서 최고 39.0%, 롯데백화점은 구두·액세서리·패션잡화 부문에서 최고 37.0%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납품업체들은 판매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등을 요구했다.

대형마트 마진율은 평균 31.4%인데, 롯데마트가 36.4%로 가장 높고 홈플러스(34.2%), 이마트(33.3%), 하나마트(24.2%) 등 순이다. 대형마트들은 주로 생활용

품·주방용품에 가장 높은 마진을 보이고 있었다.

납품업체들은 대형마트의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종별 동일 마진을 적용’,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하나로마트와 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 거래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영업담당자 500명을 대상으로 팩스와 이메일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김태선 기자

###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개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날짜가 4월 27일로 확정됐다.

남북은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이달 초 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방북을 통해 4월 말 판문점 북측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이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하는 것이다.

남북은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내달 4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의전, 경호, 보도 관련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통신문 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차후 확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달 초 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방북을 통해 4월 말 판문점 북측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이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하는 것이다. 남북은 이달 초 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방북을 통해 4월 말 판문점 북측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이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하는 것이다.

김태선 기자

###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 개최

## 충남도 내년 국비확보 ‘총력’

내년 국비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인 충남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역 현안 과제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아가기로 했다.

도는 29일 국회 본관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남궁영 도지사 권한 대행, 심·국·원·본부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참석 국회의원은 박완주(천안), 양승조(천안), 강훈식(아산), 김종민(논산·계룡·금산), 어기구(당진), 김태홍(보령·서천), 이명수(아산갑), 성일종(서산·태안), 홍문표(홍성·예산) 의원 등 9명이다.

도지사 권위로 국비 확보 차질 우려가 있고 있는 상황에 따라 예년에 비해 앞당겨 마련한 이번 정책설명회는 도정 설명과 지역 현안 협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도정 여건과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8대 현안 과제에 대해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8대 현안은 △내포신도시 중심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및 추진 △내포신도시 정부 공공기관 이전 추진 △소방복합치우센터 유치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관 시설 유치 △평택당진간 진입도로(신평~내항 간) 개설 △디스플레이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사업(예타 통과) △충남 국방국가 산업단지 조성 지원 △가로림만 국도38호 연장 지정 및 교량 건설 등이다.

도는 또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를 설명하고, △당진~아산 고속도로 건설(10억 원) △아산~석

문산단선 철도 건설(예타 선정) △KTX 혼련소역 건립(50억 원) △삼교역사 설치(10억 원) △수도권전철 독립기차량 연장에타 선정)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예타 선정)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 유치(15억 원) △대산일출산업지역 해수담수화 사업(260억 원) △안흥 마리나 항만 조성 사업(70억 원) 등 충남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25개 사업 1426억 원이 내년 국비에 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 확보한 국비보다 4896억 원 많은 6조 3000억 원으로 잡았다.

이 자리에서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도지사 권위로 정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국비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절대적인 요소인 만큼, 충남의 역량을 결집해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은 현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 국비 확보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별로 예산안 편성 작업을 본격 시작해 5월 2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김정환 기자

2018. 4. 14.(토) - 15.(일)  
청양 칠갑산장승공원 일원

주요행사: 칠갑산장승문화축제공인위원회 주관, 청양문화원 후원  
주요공연: 칠갑산장승문화축제추진위원회 주관, 청양문화원 후원

주요행사: 칠갑산장승문화축제추진위원회 주관, 청양문화원 후원  
주요공연: 칠갑산장승문화축제추진위원회 주관, 청양문화원 후원

주요행사: 칠갑산장승문화축제추진위원회 주관, 청양문화원 후원  
주요공연: 칠갑산장승문화축제추진위원회 주관, 청양문화원 후원



# 검찰 기소한 '공안사건', 노동사건 90% 대공사건 단 0.2%

## MB정부 시절 부활한 공안부, 대공사건 줄어들자 대부분 노동사건 주력

검찰이 기소한 "공안사건" 중 약 90%는 노동사건으로 임금체불이나 퇴직급여 미지급 등 대부분 개인 간 이해관계 관련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공 관련 죄로 기소된 사건은 0.2%에 불과했다. 노동사건이 대부분인 만큼 노동사건전담부서 신설하고 대공 사건 업무를 일반 형사부에 이첩하는 등 검찰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3년 간 '공안사건'으로 접수한 사건 중 노동사건이 88.4%(2만7천 건 중 2만4천 건)

인 반면, 나머지 출입국 위반, 공직 선거법 위반, 대공사건 등 공공에 관한 사건은 11.6%(2만8천여 건)에 그쳤다.

접수된 24만여 건의 노동사건도 개인 간 임금체불 사건, 퇴직급여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이 대부분(82.1%)을 차지했다. 산업안전 위반이나 노동조합법 위반 등 노사분규에 관한 건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과연 '공안'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소현황 역시 노동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3년 간 기소된 12만 건의 공안사건 중 노동사건이 10만 건

(88.7%)으로 대다수였다. 반면, 대공사건은 236건만(0.2%)을 차지해 그 비중이 매우 낮았다. 또 기소율도 7.4%(3,331건 중 236건 기소)에 불과해 출입국사건이나 선거사건 등의 다른 공안사건 평균인 44.4%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직접적인 공공안전보다는 이해관계 사건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노동, 학원, 사회·종교 등 관련 사건을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과 같이 '공안' 사건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참여정부 당시 폐지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한 대검찰청 '공안 3부' 업무분장을 보

면 노동, 학원, 사회·종교 등 단체 관련 사건 처리와 동향파악을 업무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어 공안 부서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진선미 의원은 "노동이나 학원, 종교·사회 단체 문제는 더 이상 '공안문제'라고 볼 수 없다"며 "노동사건전담부 신설과 대공수사 일반 형사부 이첩 등 조직을 개편하고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후보 시절 우리 사회에 맞는 공안부서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하루 빨리 공안부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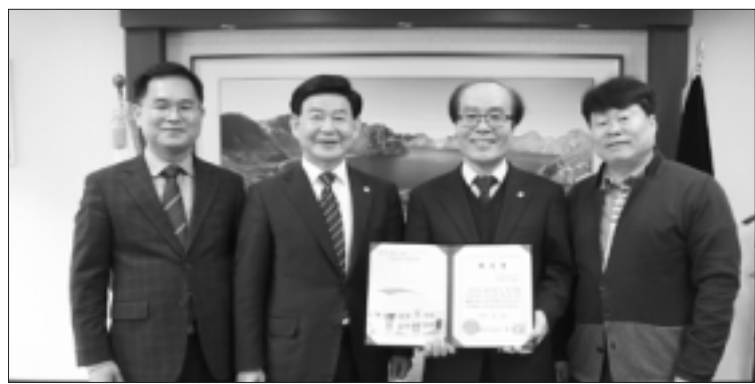
이정복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 대전이문고·대전느리울초 현장방문 실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병철)는 29일 제237회 임시회 기간중 대전이문고와 대전느리울초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문고 현장방문에서 의원들은 "이문고 교실 중 12개가 빈칸이 위치하여 채광이 되지 않고 습기가 많아 차 학생들 수업에 매우 적당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은 학교측에서 제시한 급식실 등 증축을 통한 교실확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느리울초 현장방문에서 의원들은 "느리울초는 차량 출입로가 없어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또 급식재료 유출차량이 학생 등교시간에 인도를 통행하고 있어, 학생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은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전 서구의의회, 명을식 고문변호사 위촉

신속하고 명쾌한 법률자문이 있을 것으로 기대



대전 서구의의회장 최치상(가운데)은 명을식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대

전광역시 서구의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위촉되었으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위촉으로 의회의 의정활동 등

로 인한 소송사건 자문과 수임, 의회와 관련된 법령해석,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맡게 된다.

최치상 의장은 "대전에서 활발한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신 분으로 다양한 법률 경력을 바탕으로 서구의회의 각종 법률사안을 신속하고 명쾌한 법률자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명을식 고문변호사는 군 법무관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대전 지방공정거래협의회 자문위원장, 대전 지방법원 조정위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고문변호사, 한밭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 충남도의회, 조례 제·개정때 도민의견 청취 확대

참여 폭 더욱 확대·강화

충남도의회가 조례를 제·개정할 때 도민 의견 청취 및 참여 폭을 더욱 확대·강화한다.

충남도의회는 내달부터 입법예고한 조례에 대한 도민의견을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도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조례 제·개정에 앞서 도민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

해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접근하기 쉽고 의견작성이 편리한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도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우편, 전화, 팩스(FAX), e-Mail을 이용한 의견제출만 가능해 실시간 도민참여가 제한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신규서비스 제공으로 조례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홈페이지에서 댓글 형식으로 쉽게 제

출할 수 있어 의정참여의 폭이 넓어졌다. 또한, 의견등록은 간단한 본인인증만 마치고 바로 가능해 편리함을 더해줬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민 가까이에서 경청하는 마음가짐으로 소통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도민에게 먼저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정복기자

## 복기왕 후보, 보령시장신문 주최 김응수 토크쇼 출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 역설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29일 보령시장신문 주최로 보령시 문화의전당에서 열린 '보령시민과 더불어 웃음을 나누는 김응수 토크쇼'에 출연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크쇼는 보령출신 배우인 김응수 씨의 사회로 진행됐고 복기왕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와 김기호, 이시우, 최진복 보령시장 예비후보가 출연했다.

지방의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는 질문에 복 예비후보는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전략만이 지방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는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어져 온 균형발전 철학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없어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한 번 균형발전 철학으로 국가 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국가 정책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제2국무회의가 잘 운영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이번 지방분권 개편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남 차원의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해 복 예비후보는 "각 시군마다 처한 조건과 현실이 다르다. 지방분권이 잘 이뤄지면 각 시군은 자신의 어려움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민선 7기 도지사가

된다면 각 시군의 독자성과 특성, 장점을 극대화 시키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복기왕 예비후보가 밝힌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이목을 끌었다.

복 예비후보는 "처음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지역에서 지역주의 장벽을 허물겠다고 고향 아산에 내려온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할 수밖에 없던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이 노무현이었지만, 대부분의 시장·도지사, 시장·군수가 상전전락의 세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생활정치를 혁신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시작이란 생각으로 아산시장에 도전했고 9년간 일했다"며 아산시장에 도전한 계기를 설명했다. 또 "충남도지사로서 도전하는 이유는 충남도 차원의 민주주의 발전, 자치분권 확대라는 시대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며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를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 서산시의회, 제232회

### 임시회 개최

서산시의회 제232회 임시회가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의회는 29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양승조 의원은 5년 법안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주문했다. 이후 30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다음달 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의안을 최종 심의한다.

우중재 의장은 개회사에서 "힘차게 달을 올렸던 제7대 서산시의회의 임기가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에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서산=김정환기자

## 국립한밭대 제8대 총장

### 임용후보자선거 5명 입후보

국립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의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 총 5명이 입후보했다. 3월 28일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입후보자는 김영수 교수(도시공학과), 김양순 교수(영양영문학과), 유병로 교수(건설환경공학과), 이재흥 교수(컴퓨터공학과), 최병욱 교수(화학생명공학과) 등 총 5명이다.(이상 가나다순)

이들은 3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이들 후보자들은 3월 29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11일까지 선거운동을 실시한다. 선거일은 4월 12일이며, 대학내 N2동 이트홀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 유성구선관위, 입후보예정자

### 위한 기부행위자 고발

대전시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유성구청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지원금 A씨의 의정보고회에 소속 협회 임원 등을 참석하게 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협회장 B씨를 3월 29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협회장 B씨는 지난 3월 초 지방의원 A씨의 의정보고회에 협회 임원 등을 참석시키고, 유성구 소재 식당에서 동 의정보고회 참석자 17명에게 128만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성구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협회 임원 중 17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최대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 박영순 더민주 대전시장 예비후보 시민특보단 공개 모집

###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선거 위해 모집 진행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선거를 위해 '시민특보단' 1차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 29일 밝혔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형, 통합형 경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첫 단추로 '시민특보단' 공개 모집에 나선 것이다.

출마선언을 통해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고, 시민과 함께 일하

는 친구 같은 시장'을 표방한 박 후보의 '시민특보단'은 대전의 발전에 관심 있는 대전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 예비후보 측은 시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정책수립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대전발전 밑거름이 될 정책수립에 생활주변 소소한 개선사항까지 시민특보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

다. 신청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6일간으로, 19세 이상 대전시민(공무원 제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대전발전 정책제안 및 공약 평가, SNS 서포터즈 지원 등의 역할을 맡아 활동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SNS에 링크된 '구글폼(<https://goo.gl/ULXhZE>)'에 접속해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정복기자

## 양승조 의원 '충남 큰 말씀 듣기' 수덕사 정묵스님 예방

### 정묵스님 "상처받은 충남도민에 온화한리더십 필요"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의원이 29일, 수덕사를 방문한 가운데 제22대 주지 정묵스님을 예방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정묵스님은 "최근 충남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우리 충남도민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 상처받은 도민을 따뜻하게 어루만질 수 있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양승조 의원이 따뜻한 리더십으로 충남도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고 양승조 의원은 전했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정묵스님

들겠습니다"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22일 천주교 유홍식(라자로) 대전교구장 예방에 이어 두 번째

행보로 금일(29일) 수덕사 주지 정묵스님을 예방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정묵스님은 "최근 충남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우리 충남도민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 상처받은 도민을 따뜻하게 어루만질 수 있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양승조 의원이 따뜻한 리더십으로 충남도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고 양승조 의원은 전했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정묵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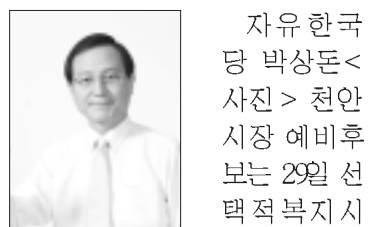
의 큰 말씀 가슴 속 깊이 새길 것이다. 항상 충남도민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믿을 수 있는 도백(道伯)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정묵스님은 법장스님을 은사로 1976년 수계했으며, 선분사, 호암사 주지로 12, 13, 14, 15대 중앙총회의원과 수석부회장을 역임하고 2015년 4월부터 조계종 제7교구 목석총림 수덕사 제22대 주지로 재임중이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찾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 "큰 말씀 들었습니다"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 갈 것임을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 박상돈 "천안시민, 선택적복지시스템 제도 도입"

### 전체 천안시민에 복지 혜택 돌아가도록 하겠다 공약 제시



자유한국당 박상돈 <사전> 천안시장 예비후보는 29일 선택적 복지 시스템을 도입

해 전체 천안시민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공약을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선택적복지시스템은 통상 직장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복지제도인데, 행정성 차원에서 국민 또는 시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복지제도라고 생각하여 공약으로 제시하게 되었다"며 공약의 도입배경을 밝혔다.

선택적복지시스템은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로서,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 주문하는 식당에서 이를 따 카페테리아 플랜(Cafeteria Plan) 또는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라고도 불린다. 복지 항목

에 대한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줌으로써 복지를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관리, 건강용품·도서 구매 등 각종 복지후생 항목들 가운데 각각의 근로자에게 주어진 포인트만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박 후보는 "제가 공약으로 제시한 선택적복지시스템은 모든 천안시민을 수혜대상으로 하되, 무분별·무차별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천안시장과 천안시민을 위해 봉사활동 또는 공익적 기여 활동을 한 천안시민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함으로써, 천안시민들의 공적 기여 활동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와 설계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천안시민들의 지방적 봉사과 공적기여활동을 유도하여 훈훈함이 넘치는 천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박 후보는 소요재원에 대해서도 구상을 밝혔다. 당선인 된 후, 세외수입을 추가로 발굴하거나

이정복기자



# 충청 공직자 재산 늘었다

## 총 재산규모 37억954만원... 전년 대비 1억7150만원 감소

이춘희 세종시장의 재산규모가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시·도 단체장(권한대행 포함)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개된 공직자재산공개에서 이 시장은 총 재산규모를 37억954만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억7150만원이 감소한 수치다.

특히 이 시장은 세부 재산보유 현황에서 건물과 예금 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시장 본인과 배우자, 모친이 보유한 건물의 가치는 총 16억7100만원이고 예금규모는 20억6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시장 본인 명의의 건물은 경기도 과천시 소재 아파트(6억3800만원 상당)와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아파트 전세권(임차액 1억7000만원), 예금액은 14억3300만원으로 집계된다.

이 시장에 이어 재산이 많은 지자체장은 이시종 충북도지사로서 이 지사는 올해 재산액 16억3100만원(전년대비 5600만원 증가)을 신고했다.

또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재산액 10억6200만원(전년대비 1억3300만원 증가),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재산액 9억9200만원(전년대비 1억5100만원 감소)을 각각 신고해 '세종>충북>충남>대전' 순으로 지자체장 재산규모가 컸다.

김경환 대전시의회의장은 3억9339만원(559만원 증가)을 신고했다. 최고 재력가는 박희진 대전시의원으로 소유한 토지 등의 공시

가치가 상승해 77억3880만원(5억2399만원 증가)을 신고했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등의 예금이 늘어나 지난해보다 7443만원 늘어난 9억3887만원을 신고해 대전지역 5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9억1797만원(↑5294만원),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은 5억2309만원(↑1231만원), 장종태 서구청장은 4억9018만원(↑1913만원)을 신고해 모두 증가

했다. 한편 박 동구청장은 아파트 중도금 납부 등으로 지난해보다 약간 줄어든 6억8563만원(↓115만원)을 신고했다.

4개 광역시·도 교육감의 재산 공개 현황에선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11억5400만원(전년대비 3억2800만원 증가)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9억3900만원(7100만원 증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8억7700만원(1700만원 감소)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6억7500만원(6300만원 증가) 등의 순을 보였다.

김정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양사무소 신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양사무소가 1997년 홍성사무소와 합병·폐지된 이래 20년만에 부활해 30일자로 홍성·청양사무소에서 청양사무소로 분리된다.

청양지역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관계기관·단체 등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해 지난 연말 발표한 농관원 청양사무소 증설계획이 확정됐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농정정보

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영세 고령농은 물론 소비자·농업인에게 맞춤형 농정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서비스를 적기에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청양군 관계자는 "고추, 구기자, 벨론 등 지역 특산품에 대한 고품질·안전관리에 있어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농식품 안전·품질관리 전문기관인 농관원 청양사무소가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임하는 청양사무소 김경중 소장은 "청양사무소는 지난 20년간 지역농업인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농정 지원을 실천하는 등 농업인과 함께하는 일선 농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범 기자

# 청양독립운동, 그들의 역사를 밝히고 기억한다

## 지역의병활동과 합천전투 조명 학술세미나 개최

청양군(군수 이석화)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29일 청양문화회관에서 청양지역 의병활동과 합천전투를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호국정신의 기치를 드높였던 청양지역 의병들의 삶과 정신을 조명하고 그 뜻을 기리고자 마련됐다.

이날 ▲독립기념관 박민영 연구원(청양지역 의병전쟁의 과정과 의의) ▲충남대 김상기 교수(청양의 합천전투 조명) ▲충남대 립대 박호제 교수(청양지역 의병전쟁 참여자 연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박경목 관장(청양 의병투쟁 관련 콘텐츠 활용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 한국학중앙연구원 정구복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단국대학교 박성순 교수, 청운대학교 김경수 교수, 윤홍수 향토사학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정을경 선임연구원이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합천전투는 1906년 3월 17일 민주총서 의병장을 총수로 하는 홍주 의병의 봉기 소식을 듣고 급파된 공주부 주재 일본헌병대가 청양군 화성면 합천지역에서 충남 최초로 벌인 전투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청양 합천전투의 경험이 홍주의병을 다시 규합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1906년 5월 홍주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으로 재조명됐다.

또한 의병전쟁시에 있어 청양지역은 중기의병을 상징하는 홍주의병과 최익현의 태인의병이 발원한 연원지로서 역사적 큰 의

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석화 군수는 "합천전투는 우리 청양지역 인사들이 주축이 된 홍주의병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귀중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항일 투사인 면암 최익현 선생과 민중의 의병장 등이 청양 출신이며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치열했던 정산 3.1만세운동도 청양에서 일어난 만큼 앞으로 청양지역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청양군은 충남지방에서 두 번째로, 전국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174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으로(안동 339명, 홍성 201명) 이번 학술세미나는 이들의 호국정신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청양의병에 대한 재조명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정성범 기자



# 충남경찰청 7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충남지방경찰청(이재열)을 비롯한 도내 7개 교통유관기관 대표자는 3월 29일 충남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10% 줄이기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한국교통

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대전교통방송,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이 참여, 상호협력력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이재열 청장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 만들기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 대통령 개헌발의 대전충청 세종, 찬성 65.3% vs 반대 24.1%

## <리얼미터>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헌발의 찬성 여론이 1주일 전 개헌안 발의 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높아졌고 특히 반대 여론이 강했던 보수층과 대구경북(TK)에서도 변화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6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의외로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지난주 1차 조사(21일) 대비 4.7%p 오른 64.3%(매우 찬성 40.5%, 찬성하는 편 23.8%)로 나타났다. 반대 응답은 1.1%p 내린 27.6% (매우 반대 16.5%, 반대하는 편 11.1%)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3.6%p 감소한 8.1%.

대구·경북과 60대 이상, 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에서 찬성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가운데,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린 대구·경북과 60대 이상, 여전히 반대 응답이 대다수인 보수층에서도 지난주 조사에 비해 찬성 응답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야 지지층별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찬반이 분명하게 맞섰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지지층, 무당층에서는 찬성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거나 우세했다.

모든 지역에서 찬성여론이 상승한 가운데, 광주·전라(찬성 76.3% vs 반대 14.5%)와 서울(68.5% vs 28.4%), 경기·인천(66.0% vs 26.6%), 대전·충청·세종(65.3% vs 24.1%), 부산·경남·울산(56.5% vs 28.8%) 순으로 찬성이 대다수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찬성 46.0% vs 반대 46.5%)에서는 찬성이 지난주 조사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16.8%p, 1차 29.2% → 2차 46.0%), 반대 응답과 조박빙의 격차로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찬성 응답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 30대(찬성 76.7% vs 반대 17.6%)와 40대(74.9% vs 18.9%), 20대(69.5% vs 20.3%), 50대(63.3% vs 28.9%) 등 50대 이하 전 연령층에서 찬성 응답이 대다수로 조사됐다. 60대 이상(찬성 44.0% vs 반대 45.8%)에서는 찬반 양론이 박빙으로 맞섰지만, 역시 지난주에 비해 상당폭 상승했다(▲4.1%p, 1차 39.9% → 2차 44.0%).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찬성 90.9% vs 반대 6.2%), 정의당(75.0% vs 25.0%), 평화당(54.3% vs 45.7%) 지지층과 무당층(37.7% vs 24.0%)에서 찬성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우세했다. 반면, 한 국당(8.8% vs 85.2%)과 바른미래당(41.2% vs 50.9%)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거나 절반 이상이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86.1% vs 반대 10.6%)과 중도층(64.3% vs 30.0%)에서 대다수가 찬성한 가운데, 보수층(36.9% vs 60.1%)에서는 반대가 대다수였으나 지난주 조사 대비 찬성 응답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10.7%p, 1차 26.2% → 2차 36.9%). 이번 조사는 지난 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5%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p이다.

이정복 기자

특수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  
국기무형문화재 제75호

희망차!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

# 2018기지사 줄다리기

## 민속축제

2018. 4. 12(목) ~ 15(일)  
기지사줄다리기 박물관 일원

주최/주관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문화재단, 대전광역시관광진흥재단, 대전광역시체육회, 대전광역시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협동조합,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협동조합연합회,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협동조합연합회

후원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문화재단, 대전광역시관광진흥재단, 대전광역시체육회, 대전광역시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협동조합,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협동조합연합회,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협동조합연합회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6 태동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 미식시장 찾아 떠나는 서울 푸드 투어

## 청양군, 농식품 전문가 양성 위한 서울미식 투어 실시... 외식관광 산업 육성할 계획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28일 농식품 전문가 양성과정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식시장을 찾아 떠나는 서울 푸드투어를 주제로 서울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방문한 1인 반상 전문점 수라선(강남구 역삼동)은 완도산 전복과 서해 꽃게를 주재료로 전복장 비빔밥이 대표 메뉴로 지역 식재료의 스토리가 가득한 매거진 형태의 메뉴판으로 식사의 즐거움을 더했다.

또 필통24번가(중구 필동)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낙후된 거리를 현대적으로 탈바꿈한 예술인의 터전으로 스트리트 뮤지엄과 아기가자기한 식당과 카페, 문화와 맛이 공존하는 곳으로 지역주민이 주



체적으로 참여해 거리를 변화시켰다. 백막걸리(중구 남산동)는 전통주 전문점으로 200여종의 전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막걸리를 비교 시용할

수 있고 지역별 재철 재료를 이용한 안주메뉴를 선보여 전통주와 한식이 어우러진 조화를 느낄 수 있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향후 외식산업 모델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을 맛을 살린 특색 있는 메뉴를 상품화해 외식관광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 전문가 양성과정은 지난 2월 개강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 전문인 양성과 농촌지원 소득화를 목표로 ▲외식트렌드 ▲외식상품화 ▲로컬푸드 스토리 ▲푸드투어 ▲푸드마케팅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청양=정상범기자

# 홍성군 여성농어업인이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

## 1인당 15만 원 · 만70세-만73세 여성농어업인까지 확대 지원

홍성군이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8년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018년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만20세 이상부터 만73세 미만(1946.1.1. ~ 1998.12.31.)이면서 세대원 농지 소유면적이 5ha 미만인 여성농어업인이다.

수혜는 약 3,600가구가 될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4억 3천만 원으로 자부담 3만 원을 포함해 1인당 15만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농협 군지부에서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아 올해가 가기 전까지 사용된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전업농과 겸업농이 모두 사업 수혜대상이 되었으며, 만20세부터 만70세 미만까지였던 나이 제한도

만73세까지 확대 됐다.

또한 신청 시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지원신청서만 제출하도록 신청 서류가 간소화 되었으며, 카드 사용처가 16개 업종에서 카페, 관광업 등이 추가된 20개 업종으로 증가하여 여성농어업인들의 이용 편의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행복바우처 수혜 대상자와 카드 사용 가능처가 더 확대되었으므로, 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여성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3억 9천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여성 농어업인 2,806명의 행복한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홍성=김정한기자

# 철도 '건설 분야' 협력사 목소리 들어 철도공단, 협력사 상생협력 간담회 열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8일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 근절과 급변도 철도건설 사업비 상반기 집행목표 3조 3,721억 원 달성을 위해 철도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57개 협력사와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철도공단은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공정 관행 근절과 건설기술용역인·낙찰제도 개선 등 정부정책을 전달하는 한편, 무기명 건의함을 통한 협력사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아울러,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상저하(上底下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건설 사업비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협력사에 요청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사 직원들은 최근 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 외부작업 발판 추락사고 등을 반면교사 삼아 철도건설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송병배기자

# 아산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신청예산 심의회 열려



아산시가 지난 28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신청예산 심의회'를 열고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총 48개 사업 499억여 원을 신청키로 의결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업인 등이 신청한 자율사업과 기관 및 부서별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해 ▲FTA 기금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촌자원복합화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 48개 사업을 내년도 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른 2019년 신청예산은 499억여 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국비 262억여 원, 지방비 94억여 원, 융자금 102억여 원, 자부담 41억여 원 등이다.

이번에 심의한 신청예산은 충청남도 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은 뒤 각 사업 분야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규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아산시 농정에 유익한 신규 사업 발굴과 함께 중앙 관계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농림축산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한국동서발전(주)당진화력본부 발전소 주변 어민소득 증대 기여

## 온배수 가두리 양식장 중간육성 전복 지역 어촌계에 전달



한국동서발전(주)당진화력본부(본부장 박상준)는 지난 28일 오후 1시에 발전소 온배수 가두리 양식장에서 중간육성 전복을 발전소 인근 해역 교로리 어촌계에 전달했다.

당진화력의 온배수 가두리 양식장에

서 지난해 11월 입식하여 5개월 동안 키운 중간육성 전복을 전달하는 이날 전달식에는 체납기 교로리 어촌계장, 이창열 당진화력 환경안전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당진화력은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전복 가두리양식에 성공했다. 이는 바닷물과 온배수를 혼합해 육상에서 양식하는 기존의 방법과 달리 온배수로 내에 직접 가두리 양식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온배수의 활용 가치를 더욱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전달된 3만 미의 전복은 예목항 인근 해역에 방류될 예정이다. 당진화력은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관련 환경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어족자원 보존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당진=최근수기자

# 청양군 비봉농공단지 기숙사 준공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28일 이석화 군수를 비롯한 비봉면 기관단체장 및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안정적인 정주 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비봉 농공단지 기숙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비봉 농공단지 기숙사는 비봉면 작은한솔길 48-22 농공단지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0억이 투입돼 연면적 1335㎡(405평)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됐다.

주요시설은 숙소 34실에 복카페, 방비실, 세탁실, 기계실, 통신 관리실 등이 들

어섰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기업의 안정적인 정주 기반 구축을 위해 가장 최신 시설을 갖춘 기숙사에서 편안하게 휴식하고 미래를 꿈꾸어 나가는 요람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은 지난해 운곡2농공단지 와 이번 비봉농공단지 기숙사에 이어 화성농공단지 기숙사도 신축 중으로 기업하기 좋은 정주여건을 갖춰 전국의 유망 중소기업들이 입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청양=정상범기자



# 충남도-서산시-경찰 체납차량 합동단속

서산시는 27일부터 28일까지 충남도 및 충남지방경찰청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전체 체납액인 118억의 40%인 48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날 시는 대규모 아파트 및 주요도로변, 원룸촌 등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변호관 영치 14대, 예고 10대 등 총 181건의 처분과 2100만 원 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앞으로도시는 분기별 1회 이상 영치의 날을 지정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영치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기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재산압류와 공매 등을 추진하고, 급여·예금압류, 명단공개, 출금금지, 관허사업제한, 가택수색 등을 추진하는 등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성철 서산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변호관 영치 및 각종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해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언제나 열린의정으로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계룡시의회  
council.gyeryong.go.kr

T. 042)840-2733 / F. 042)840-2749  
http://council.gyeryong.go.kr



# 한밭대 제1회 소통과 공감 음악회

음악 통한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제공하고자 마련



국립 한밭대학교(총장 송화영)가 28일 오후 5시 국제교류관 로비에서 "문화가 있는 날, 제1회 소통과 공감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 음악회는 한밭대가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 시민들을 위해 음악을 통한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정기 문화행사로 이날 첫 무대가 열렸다. 이 음악회에서는 지역 주민과 한밭대 학생, 교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객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셉틸리체(Semplice) 피아노 5중주단과 소프라노 성향제, 소프라노 구은경, 테너 김주완, 바리톤 김경호 등 국내 최정상급의 음악가들이 출연

해 유쾌한 무대를 선사했다. 진행은 한밭대 김민호 초빙교수가 맡았으며, 셉틸리체가 연주한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시작으로 윌슨의 '리베르망고' 등 우리 귀에 익숙한 15곡의 주옥같은 음악들이 이어졌다.

한편, 한밭대는 올 해 '문화가 있는 날, 소통과 공감 음악회'를 마련해 매 분기마다 개최한다. 지역사회 시민과 한밭대 구성원 등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무료공연이며, 다음 음악회는 5월에 있을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 시민 친화 공간 조성 민·관 간담회

아산시, 장미마을의 기능전환 위해 추진사항 점검 등



아산시는 지난 28일,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이장규 부시장 주재로 아산경찰서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함께 13개 관련부서들이 장미마을의 기능전환을 위해 추진 사항 점검 및 지역 공감대 형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간담회는 2015년 3월부터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에 들어서 처음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세븐모텔 리모델링 사업과 도로 확·포장 사업 등에 대한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여론 청취를 위해 장미마을 주민 9명 등장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

다. 이장규 아산시장은 "한밭대는 도시재생의 거점 확보 및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해 세븐모텔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장미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 확·포장 사업이 추진되어 장미마을이 보다 시민 친화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완전한 기능전환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역량을 좀 더 더 아주시야 한다."며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관심 및 응원을 부탁했다.

한편, 시는 향후 분기별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부서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공생하고 소통하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 세종시설공단, 국가중요시설 경계 협정

세종경찰서, 세종시경비단과 통합방위태세 확립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은 29일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국가중요시설인 세종공동구 방호를 위하여 세종경찰서 및 세종시경비단과 '세종공동구 경계협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경계 협정의 목적은 세종시 방호부대였던 세종부대가 세종시경비단으로 격상됨에 따라 새로운 내용을 반영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있다.

신인섭 이사장은 "공동구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각종 시설이 수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구를 통해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 보안시설물의 접근이 가능하다."면서 "군·경과의 협조를 통해 적의 침투로 인한 테러 등을 예방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정환기자

# 공인인증서 제도 20년만에 사라진다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40일간 국민 의견 수렴

이르면 올해 안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공인·사실인증서 사이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간 약정

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그 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해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명확히 했다.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한다.

과거정 정부장관은 전자서명에 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 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의 평가와 인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전자서명인증업무가 운영 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행 제도와 같은 수준의 가입자·이용자 보호장치를 유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요금, 이용범위 등 포함된 업무준칙을 작성·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또 업무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과 보호조치를 사전에 함께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불가피하게 개별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할 경우,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으로서의 특권적 지위를 박탈되지만,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과거정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확인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133.201)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정환기자

# 청양군, 과수 화상병 예방 방제 현장지도활동 나서

치명적인 화상병 예방 위해 적기방제 현장지도활동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과수에 발생하는 치명적인 화상병 예방을 위해 적기방제 현장지도활동에 나섰다. 과수 화상병은 배, 사과 등 장미과 180여종에 이르는 식물의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그을린 자국이 나타나는 병으로 감염되면 나무가 급속도로 말라 죽는다.

효과적인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배의 경우 꽃눈발아 직전인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 사과는 새순발아 시기인 4월 상순 다른 약제와 혼용하지 말고 반드시 단일 약제로 살포해야 한다. 또한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할 경우 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살포해야 한다. 화상병 예방 약제로 동제화합물인 코퍼셀페이

트메이식 수화제, 트리메인식 코퍼셀페이트 액상수화제, 코퍼하이드 록사이드 수화제, 코퍼옥시클로라이드·가스가마이신 수화제 등이 있으므로 적기에 적량을 살포하면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청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상병은 예방이 중요한 만큼 적용약제를 제때에 살포할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청양=정상범기자

# 노인일자리 어르신과 함께 '3월愛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대덕구,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150여명



대전 대덕구(박수범 구청장)는 29일 대덕구평생학습센터에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150여명과 함께 '3월愛 문화가 있는 날 함께해요' 학습동아리 공연을 펼쳤다.

이날 공연은 지난해 대덕구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수상자들이 마련한 것으로 인생 100세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깊은 공연이 됐으며,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펼쳐진 '공사모' 동아리에서 준비한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플라워 아트, 다육 식물과 재활용품을 활용해 만든 도우 아트는 지역 주민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김태선기자

# '시니어 드림플래너 전문강사' 양성과정 개강

우송정보대학평생교육원, 노인인구 1천만 시대 본격 준비



우송정보대학 평생교육원이 노인인구 1천만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시니어 드림 플래너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개강한다.

시니어 드림 플래너란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 정서, 경제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전문가'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는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고령화 시대를 맞는 다양한 시니어 케어 프로그램 개발을 교육하고, 중장년 층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경력과 경륜을 고려해서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재능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재사회화 교육을 위한 전반적인 컨설팅 업무 등 개인 맞춤형 종합

노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노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산 상속, 유서쓰기, 존엄사 등 누구에게나 공포로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 사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과정은 4월 27일(금) 개강해 매주 3시간씩(18:30~21:30) 시간씩 10주간 총 30시간으로 구성되어 6/29까지 진행되며, 수료후 수료증 수여와 더불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드림 플래너 협회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lifelong.wsi.ac.kr/main/index.jsp>)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전화 : 우송정보대학 평생교육원(042)629-6990 (강사 : 010-8720-3609) 이정복기자

정부대전청사 개청 20주

년 맞이 나무심기 행사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박준하) 대전청사관리소는 개청 20주년(1998.8.)을 맞이 입주기관이 함께 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29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입주기관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10개 기관(1개부, 9개청) 기관장 및 직원 등 600여 명이 참여했다. 그 간 나무심기 행사는 입주기관 개별로 추진하였으나 정부대전청사 개청 20주년을 계기로 전 기관이 나무심기에 동참해 푸른청사 만들기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대전 청사관리소는 1998년 개청 시 부대 입주기관에 녹지(133,201㎡) 공간을 배정하여 입주기관의 자율적 관리를 장려했고, 이번 식목일 행사를 통해 나무를 심으며 지나온 발전취를 되새길 예정이다.

박봉관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 실무요원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충남도 및 시군의 새마을 담당공무원과 새마을회 사무처 요원



충청남도 및 시군의 새마을 담당공무원과 새마을회 사무처 요원들이 깨끗한 충남만들기를 위한 3R 자원 모으기 새마을 실무요원 민관 합동 워크숍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새마을회 관계자 60여명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제주새마을 급고연수원에서 깨끗한 충남만들기를 위한 3R 자원 모으기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새마을 실무요원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제1일차에서는 임동규 충청남도새마을회장과 김찬배 충청남도공공체새마을정책관의 인사말에 이어 충청남도의 도정시책사업 설명, 제주산업정보대학 홍석표 교수의 '새마을운동 강화가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주

제 특강에 이어 시군별 우수사례 발표, 시군 사업발표 등으로 이루어졌다. 제2일차에는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갖고 제주도 문화탐방을 실시했으며, 제3일차에는 민관협력 새마을운동발안방안에 대한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도새마을회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민·관 새마을실무요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마을운동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깨끗한 충남만들기를 위한 3R 자원 모으기 등 물론 안전지킴이 봉사활동, 홀몸노인을 위한 새마을머그리봉사대운영, 이웃 돌봄이 및 이웃사랑 행부나눔운동, 에너지절약운동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 스마트농업 및 지역공동체 리더 육성

청양군, 2018 청양농업최고경영자 과정 개강



청양군(군수이석화)이 농업 실무역량과 이론적 지식을 겸비한 신농업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7일 수강생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양농업최고경영자과정 스마트농업 및 지역공동체 리더반을 개설했다.

청양농업최고경영자 과정은 지난 2014년부터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 최신 농업 기술, 농산물 유통, 가공, 마케팅 등 농업 경영 전반에

철저 심도 있는 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왔다.

올해 과정은 스마트농업 및 지역공동체 리더육성을 위해 영농기인 5월과 8월 휴강을 제외하고 11월 28일 수료식까지 총 25주차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농업의 현황과 시대상 필요성부터 스마트농업에 적용되는 첨단 기술 등에 대한 현장교육과 실습 중심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 청각장애인도 함께한 농업기계 안전 교육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원)는 지역 농업인의 교통편의를 고려해 찾아가는 현장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농업기계의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서산소방서, 어린이 안전교육 연중 운영 서산소방서(서장 류석윤)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체득과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서 견학 및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공주교도소, 2018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공주교도소(소장 정영진)는 29일 대강당에서 출소를 앞둔 수형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대전충남지방방무청, 대전준법지원센터등과 업무 협약 대전충남지방방무청은 29일 청 내 회의실에서 대전준법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한국직업전문학교협회 대전충청지회와 사회적 배려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민간특례사업 지원위로 전략 대전도시공원위 개혁해야”

## 도솔산(우리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갈마동 주민대책위 등 성명서 발표

도솔산(우리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 대책위원회와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29일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 수준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지금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역할을 망각하고 도시숲을 훼손하는 월평공원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계속 가결해 문제다. 이런 가운데 민간특례사업 지원 위원회로 전략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관련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 문제를 대전시의회 본회의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대전시는 '대전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두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를 진행한다. 미세먼지 피해로 인한 녹지공간이 더욱 중요해진만큼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라며 "지

난 1월 24일, 대전시의회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이 대거 참여 민간특례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의 입법적 행정처리 수단으로 전략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대책위는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2월 14일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했다. 대전시가 재의를 요청한 주요이유는 개정안이 시장에 부여한 전속적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 공백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라며 "재빨리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개정안은 5명인 공무원

위원을 2명으로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당연직 위원을 5인이자 규정된 기존 조례가 오히려 시장의 권한을 더 제약하는 것이다. 오히려 개정안이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숫자를 늘려준 것이다.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취지가 민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1/4이나 되는 기존 상황이 문제지 민간위원의 수를 늘린 개정안이 문제의 소지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전시는 다양한 논리를 들었지만 결국은 대전시 입장을 대변하는 당연직 위원을 유지하고 싶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연직 공무원이 5명이나 들어가는 기존 조례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기존 취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작년 10월 열렸던 월평공원 특례사업 도시공원위원회의 경우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위원을 제외하면 찬성 5표, 반대 6표로 부결될 수도 있었지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위원을 포함하여 찬성 10표, 반대 6표로 가결된 바 있다."면서 "대전시는 민간업자와 계약을 맺고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 때문에 대다수의 지자체가 당연직 위원을 1~3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민대책위는 "현재 이 개정 조례 안은 의회에 계류 중이며 민선 6기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된다. 대전시의회는 촛불민주시민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 소통, 참여 행정 등 민주적인 행정 혁신에 동참해야 한다. 대전시의 명분 없는 개발행정에 편승해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스스로 차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대전시의회는 앞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대전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조례를 반드시 개정하라"고 덧붙였다.

김태성기자

### 공주소방서, 봄철 농기

#### 계 안전사고 주의 당부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농기계 사용이 많아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농기계 특성상 주로 밭이나 비탈길 운행이 많아 자칫하면 전복되기 쉽고 농기계와 끌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5배 이상 높아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장비 ▲전방 주시와 후시경 부작으로 뒤따르는 차량 확인 ▲야간 운행 대비 등화장치와 후부 반사판 부착 ▲도로 주행 시 중앙선 기준 가장 우측도로 이용 ▲농로 주행 시 서행 등을 준수해야 한다.

공주=정성범기자

daejeontoday.com

## 경찰청,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 미연 방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해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회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또는 우편으로 사전신

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박봉관기자

## 태안소방서, 마을담당제 '호응'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는 마을별 화재 예방 등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의용소방대원별 지정 운영하는 마을담당제가 호응을 받고 있다.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는 대원 2-5명을 1개 팀으로 구성해 2-3개의 마을을 담당하도록 지정하는 것으로, 대원들이 담당 마을을 방문해 화재 예방활동, 안전교육 등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전 가구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주택용 소

방시설 보급현황 파악 및 화재취약가구 설치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 가정 특별관리 등이다.

구동철 태안소방서장은 "평소 주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마을담당제 운영으로 소방 사각지대를 방문해 화재 예방활동, 안전교육 등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태안=김정희기자

## 예산소방서,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확산 위해 관련 문의사항 안내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원스톱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시민들에 이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란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 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문의와 민원상담 등을 처리하는 부서를 일원화하고 주민들에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소방행정 서비스 제도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임재정 예방교육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입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거나 판매처를 모르는 경우 예산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041-330-4264로 연락하면 인턴넷이나 관내 판매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산=양성업기자

열린 의정!

현장 의정!

투명 의정!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서산시의회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다 함께 참여합시다”

http://www.scc.go.kr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서산시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산시의회**  
Seosan City Council



# “직장인 10명 중 9명은 건강 적신호”

## <사람인>조사결과... 직장인이 겪는 질병 1위는 ‘만성피로’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질병을 겪고 있으며, 만성피로에 가장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직장인 1,049명을 대상으로 ‘현재 질병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92.3%가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질병으로는 ‘만성피로’(64.5%,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안구건조증’(49.2%), ‘어깨 통증’(48.9%), ‘거북목 증후군’(38.5%), ‘위염(소화불량 등)’(33.5%), ‘두통’(30.8%), ‘디스크 등 허리질환’(27.6%), ‘손목터널 증후군’(25.7%), ‘과민성 대장 질환’(21.6%) 등의 순이었다.

질병의 원인은 ‘운동 부족’(51.5%,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심한 업무 스트레스’(47.7%), ‘불충분한 휴식’(46.4%), ‘직업적 특성’(44.6%), ‘불량한 자세’(43.3%), ‘탁한 공기 등 사무실 환경’(32.1%), ‘긴 근무시간’(31%), ‘잘못된 식습관’(25.1%)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66.3%만이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따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을까? 전체 응답자 중 과반 이상인 79.5%는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관리 방법으로 건강보조제 섭

취’(47.2%,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계속해서 ‘규칙적인 운동’(38.5%), ‘충분한 휴식 및 수면’(36.5%), ‘절주 및 금연’(28.7%), ‘건강한 식습관 유지’(22.9%), ‘주기적인 병원 방문 및 건강검진’(13.8%), ‘전직, 이민 등 환경변화 준비’(11.9%) 등을 들었다.

또한, 하루 평균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시간은 ‘10분 미만’(22.7%)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20~30분 미만’(20%), ‘10~20분 미만’(14.9%), ‘30~40분 미만’(12.6%), ‘50~60분 미만’(9.2%) 등의 순이었다.

반면, 건강 관리를 하지 않는 직장인들은 그 이유로 ‘업무로 바빠 여유가 없어

서’(60.9%,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아직 젊어 나중에 해도 돼서’(20%), ‘노력해도 소용 없을 것 같아서’(19.5%), ‘타고난 건강 체질이라서’(5.1%), ‘주변에서 안 하는 분위기라서’(4.7%) 등이 있었다.

한편, 기업이 직원의 건강 관리를 위해 해주었으면 하는 것으로는 ‘야근, 초과근무 최소화’(50.8%, 복수응답)가 1위에 올랐다. 이외로는 ‘편의의자, 맑은 공기 등 사무환경’(50.1%), ‘금연, 다이어트 등 건강수당 지급’(32.5%), ‘사내에 체육시설, 안마시설 등 설치’(31.9%), ‘불필요한 회식 지양’(24.5%) 등의 순이었다.

이정복기자



## 나라꽃 무궁화 묘목 나누기 행사 실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식목일 앞두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은 식목일을 앞두고 3월 28일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충남교육청에서 배부한 무궁화 묘목 3000여개를 나눠주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도교육청에서 키워 온 3년에서 5년 된 묘목으로 각급 학교의 무궁화 동산 조성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배부에 앞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정과 김중우 주무관은 나라꽃 무궁화교육을 이수한 무궁화 관리지도사로 무궁화식재요령과 관리에 대한 자료를 나눠주며 무궁화나무 식재 요령을 안내했다.

논산=김태성기자

## 충남교육청, 화재 피해 가정에 직원 온정 담은 성금 전달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지난 1월 말 화재로 집이 전소되어 보금자리를 잃은 태안군 가정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이를 도우려 나섰다.

태안 이원초에 다니는 두 명의 자녀를 둔 피해 가정은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집이 전소되었으며, 마을 회관에서 거주하며 마을 주민들과 사회단체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

관내 학생의 어려운 상황을 전해 들은 도교육청은 신익현 부교육감이 학교를 방문해 격려하고 자체 행사 때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했던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신익현 부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새 학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하단 말씀드리며, 큰돈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십시일반 뜻을 합쳐 이번 성금이 마음에 상처를 입은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양교육지원청, 청렴 다짐 1인 1무궁화심기 식목행사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은 지난 29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지원청 화단 및 청사 주변에서 2018년 청렴 다짐 1인 1무궁화심기 식목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해 자연사랑 인식을 제고하고, 개개인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지원청 전 직원이 1인 1무궁화를 식재하여 생활 속 국가 상징에 대한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썼으며, 개인별로 나눠진 ‘나의 청렴 약속’ 카드에 청렴 메시지, 청렴 다짐 내용을 적어 나무에 걸며 청렴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윤주역 교육장은 “이번 청렴 식목행사를 계기로 더욱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양교육지원청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청양교육지원청은 청렴 식목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청렴 관련 행사를 통해 깨끗하고 맑은 청양교육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청양=정삼범기자

## 대전교육청, 토요일스포츠데이 운영학교 강사비 3억4천여만원 지원

대전 지역 239개교-초 103개교, 중 79개교, 고 54개교, 특수 3개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대전 지역 239개교(초 103개교, 중 79개교, 고 54개교, 특수 3개교)에 올해 토요일스포츠데이 운영을 위한 강사 인건비 3억4300여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토요일스포츠데이는 축구, 농구, 배구 등과 같은 일반적인 종목부터 티볼, 넷볼, 플라잉디스크 등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주말시간 학생들의 스포츠체제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운영학교 수가 지난해보다 13개교 증가했으며, 토요일스포츠데이 지원 예산도 4400여만원 증액되었다.

김정환기자

## 세종시교육청,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학교현장 합동점검

관내 유·초·중·고 각 1개교 총 4개교 대해 점검 나서

세종시교육청은 건강 취약계층인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각 학교에서 매뉴얼을 실효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다.

주요내용에는 ▲대응매뉴얼 비치여부 ▲취약계층, 관계자 대상 교육 여부 ▲보호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민감군 및 고위험군 대상자 파악 ▲에·경보 알람장치 신청 ▲에어코리아 앱 설치 ▲전파·결과보고 체계 숙지 ▲황사마스크, 상비약 등 구비로 3개 분야 총 8개 항목이며, 항목별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점검항목이 외 사전 준비사항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후 후속 조치 등 학교별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여 학생들의 건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이정복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3월 20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관내 유·초·중·고 각 1개교 총 4개교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시청이 합동으로 ‘환경부 주관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학교현장 합동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점검은 환경부 주관 ‘2018년 상반기 건강 취약계층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현장 적용상황 확인계획’

## 공주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수영(생존수영)실기교육 실시

수상안전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수영교육

수영장에서 진행되는 수영(생존수영)실기교육은 수영교육을 통해 수상안전의식과 습관을 반복 숙달시킴으로 수상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능력을 기르려는 목표로 실시된다.

일일 2차시, 총 10차시로 이루어진 이번 교육은 지난해 4~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올해는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물에 대한 적응력, 물속에서의 기본 호흡법, 생존뜨기 등 중심으로 이루어 질 예정이며, 안전한 수영교육을 위해 인명구조 등 자격증 소지 강사와 안전요원을 배치하였고, 지도(인술교사)의 임장지도와 담당부서의 점검도 진행될 예정이다.

공주=정삼범기자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은 30일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3,4,5,6학년 3,000여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수영(생존수영)실기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공주학생수영장과 탄천초등학교

## 아산시립도서관, 민원인 위한 도서관 이용 안내서 제작

도서관 방문 민원인의 안내 돕고 다양한 혜택 소개

아산시립도서관(관장 권경자)은 친절한 아산 만들기 위해 도서관 방문 민원인의 안내를 돕고 다양한 혜택을 소개하는 도서관 종합 안내서를 제작, 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중앙도서관의 개관으로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처음 방문해 도서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문의사항이 많았으며 이에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이용 안내서를 제작, 중앙도서관과 5개 분관도서관(송곡·탕정·배방·

어린이·둔포) 자료실에 비치해 신규회원 및 방문 민원인에게 배부하게 했다.

안내 책자에는 도서 대출 방법·열람실 운영 시간 등 기본적인 도서관 운영뿐만 아니라 도서예약·희망도서 신청 등 도서대출 서비스, 이동도서관·상호대차·책나래(장애인 도서택배) 등 도서배달 서비스 등 민원 편의제공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운영예정인 독서진흥 사업·프로그램 등을 소개해 도서관을 처음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도서관 전반에 대한 안내는 물론, 기존 회원들도 미처 모르고 지나친 다양한 혜택을 소개하고 있다.

권경자 시립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의 개관으로 도서관을 처음 방문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도서관 이용 안내서 제작으로 도서관 이용 정보와 다양한 혜택 등을 소개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앞으로도 친절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당진 북창초, 진입로 확장 및 교문 준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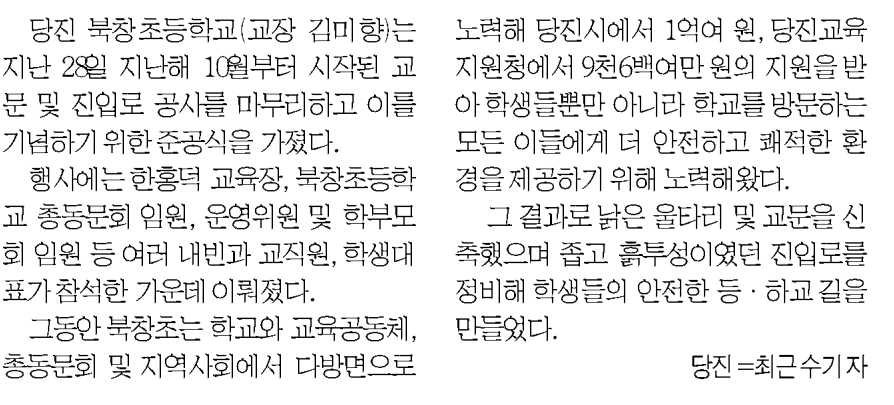
당진 북창초등학교(교장 김미향)는 지난 28일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교문 및 진입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준공식을 가졌다.

행사는 한홍덕 교육장, 북창초등학교 총동문회 임원, 운영위원 및 학부모회 임원 등 여러 내빈과 교직원, 학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그동안 북창초는 학교와 교육공동체, 총동문회 및 지역사회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해 당진시에서 1억여 원, 당진교육지원청에서 9천6백여만 원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로 낡은 울타리 및 교문을 신축했으며 좁고 흙투성이었던 진입로를 정비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길을 만들었다.

당진=최근수기자



금산교육지원청, 2018 개학기 교통안전·학교폭력예방 캠페인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희천)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아침 등굣길에 금산읍내 초·중학교 6교에서 교육지원청, 학교, 군청,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및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서산가사초, 성폭력 예방연극 관람

서산가사초(교장 임혜숙)는 28일 가사초에서 유치원, 1, 2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인형극을 관람했다. 병설유치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가사, 서령, 강당, 부석초병설유치원 원생들과 가사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100여 명이 참여하여 인형극 관람을 통해 성안전교육과 신변보호교육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청리여고, 대전시노인복지관과 사회적 효행 업무협약

지난 28일 대전시노인복지관과 사회적 효행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효행 실천과 나눔 문화 확산,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1·3세대 통합과 지역공동체 차원의 세대 교류 활성화 및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할 것을 협의했다.









**동정**

**노사협의회**



이창규 아산시장 권한대행=30일 오전 11시 시청 상항실에서 열리는 노사협의회에 참석.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



김홍태 당진시장=30일 오후 2시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전 직원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에 참석.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이석화 청양군수=30일 오전 10시 30분 대전면 장곡리(아니골)에서 열리는 제73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



**온양3동 이농하고편안한 공간으로**

아산시 온양3동 행복센터는 비좁은 사무공간을 찾아오는 시민들과 근무하는 직원들이 넓은 공간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 맞춤형 복지팀을 2층으로 이전해 민원인을 위한 휴게 공간을 늘리고, 사무실 곳곳에 화분을 배치함으로써 밝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탑상과 직원 간 직급 구분없는 자리배치를 통해 소통·협업의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또, 화장실 대변기 칸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을 규격에 맞게 개선했고,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청소 보수위해 화장실 출입 시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인권 및 사생활 보호와 위생적이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꿨다.

김형관 동장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여유 있는 공간 조성으로 이농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한층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려요,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39 대정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

## 당진시, 국내 도시 중 26번째... 아동 친화 관련 사업 추진 탄력

당진시가 유니세프로부터 국내 도시 중 26번째로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1000개 이상의 도시가 가입한 아동 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비차별 원칙,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생존·보호·발달 보장의 원칙, 참여권 보장 등을 실천하는 도시이다.

## 태안군 전국 최초의 '해양치유센터' 건립 박차

### 소금 등 천혜의 치유자원 보유·해양헬스케어 최적으로 각광

태안군이 지난해 해양수산부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 가능자원 발굴 및 산업화를 위한 실용화 연구' 협력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전국 최초의 '해양헬스케어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은 소금·송림·해수욕장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6쪽마을·생강·해산물 등 먹거리 자원을 결합, 태안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치유 자원을 적극 발굴해 전국 최고의 해양치유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영역을 추진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양헬스케어 산업은 해양의 기후와 지형, 해수, 해초, 해산물 등 각종 자원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에 활용하는 것으로, 동·서·남·북 4면이 바다에 접한 태안군에 매우 밀접한 미래 사업이다.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인 태안군은 해수욕장과 해송군락지, 솔향길, 신두사구 등 훼손되지 않은 생태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해양치유자원인 소금, 염지하수, 황토, 갯벌 등을 두루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2017년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받

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당진시는 그동안 아동 전담조직을 재구성하고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아동 실태 조사와 아동권리 구제를 위한 아동권리 옹호 관도 위촉했다.

또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과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는 등 아동 친화도시 공감대

형성과 기반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당진시는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아동 친화 관련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아동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우리/동/네**

## 태안군 제70회 도민체전 준비 '착착'

### 엠블럼·마스코트 공개·郡 "가장 성공적인 대회 만들 것"

오는 9월 13일부터 4일간 열리는 제70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의 개최지인 태안군이 역동적인 대회 구호에 발맞춰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차질 없는 준비에 나서고 있다.

군은 29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문화관광체육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제70회 도민체전이 210만 도민과 함께하는 뜻깊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전 군민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햇불과 청정비둘기 숫자 '70'으로 형상화한 엠블럼 ▲육상선수의 역동적인 경기모습과 만리포를 함께 담은 포스터 ▲군조인 갈매기와 군 마스코트인 '태랑이'를 모티브로 한 마스코트 등 도민체전의 얼굴인 상징물 4종을 옹역과 내부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지었다.

또한, 총 25개 종목이 열릴 공공시설 12개 경기장과 학교시설 10개 경기장, 민간시설 5개 경기장 등의 시설 보안을 서두르는 한편, 신축 중인 궁도장과 테니스장의 경우 6월 중 공사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민체전 기간 중 태안군을 방문하는 선수단 수가 약 9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관내 1,147개소의 숙박업소(객실 수 9,853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각 시·군에 숙박업소 이용 홍보물을 제작해 사전 배포하는 등 방문단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체전 기간 중 종합운동장 내 조성된 8개 주차장과 임시주차장 2개소를 포함한 총 10개의 주차장(2,060면)을 운영하고, 경기장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주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자원봉사자 모집을 비롯한 군민들의 참여 유도에도 전력을 기울인다.

군은 공무원을 제외한 순수 자원봉사자 인원 700명을 모집키로 하고 지난 3월 5일부터 태안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으며, 모집이 마무리 되는 대로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군민 및 도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도민체전 홍보영상물 2종을 제작·배부하고 관내 주요 전광판에 도민체전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한편, 개막식 전날 백화산 정상에서 개최되는 성화가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봉송될 수 있도록 연휴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조항각 문화관광체육과장은 1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군의 위상과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 대화합을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 당진시 2호 금연아파트 탄생

### 송악기지사리이편한세상아파트 지정



당진시가 29일 송악읍 기지사리에 소재한 송악이편한세상아파트를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2016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부터 신청을 통해 금연아파트를 지정해 오고 있다.

대동다숲아파트에 이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송악이편한세상아파트는 오는 6월 3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단지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의 흡연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계도기간 이후 금연대상 장소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당진시는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와 담배꽂초 무단투기, 냄새로 인한 주민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금연구역 지정에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각 지정 구역별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며, 보건소에서는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 청양군 긴급 구제역 일제접종 실시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구제역 유행 방지를 위해 관내 사육되는 돼지에 대해 긴급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이번에 발생한 농장의 구제역 바이러스는 A형으로 과거 한우에서는 두 차례 발생한 적이 있지만 돼지에서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양군은 농가에 A형 백신 공급을 완료하고 돼지 사육농가 35호 5만여두에 대해 28일과 29일 이틀간 긴급 일제접종을 실시했다. 또한 일제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더라도 백신만으로는 완벽한 차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축사내·외부매입 소독 및 외부인 출입차단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그 동안 돼지에 대해서는 O형 위주도 백신을 접종해 왔으나 백신 미접종 유행인 A형 확진으로 돼지에서 방어력이 없고 역학병의 발생 우려 등 유행 위험성이 있어 위기경보단계가 관심에서 심각으로 격상됐다.

청양=정성범기자

## '넘버원 청양' 홍보 맡겨주세요

### SNS 서포터즈 위촉식 열려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SNS를 통한 홍보를 위해 지난 28일 다양한하고 참신한 홍보활동을 펼칠 SNS서포터즈 11명을 추가 위촉해 청양 알리기에 나섰다.

제1기 청양군 SNS서포터즈는 지난해 3월 처음 출범해 다양한 군정 소식과 축제, 관광, 맛집 등의 정보를 제공해 청양의 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에 군은 현재 1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1기에 주부,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11명을 추가로 위촉해 더욱 유용하고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한층 더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된 서포터즈들은 내년 2월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되며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청양의 다양한 소식과 이야기를 취재하여 널리 알리게 됐다.

특히 축제와 문화행사 등 다양한 현장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해 청양 홍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SNS가 지역을 홍보하는 핵심 수단 하나가 됐다"며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 청양군 홍보대사의 역할을 톡톡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포터즈로 위촉된 이미지



(50,고양시)는 "정성 청양의 홍보를 담당하게 될 서포터즈가 돼서 기대감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청양의 10경을 비롯한 관광명소와 문화재, 고추구기 축제 등의 홍보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양=정성범기자

## 아산시 지방세 성실 납세자 경품 추첨

아산시는 28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세 성실 납세자 경품 추첨을 청원경찰 배석 하에서 시청 징수과 사무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경품 추첨은 2018년 1월 자동차세(선납분) 납부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에 의거 진행되어 총 100명의 당첨자에게 3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증정된다.

경품 당첨자에게는 상품권을 동봉해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당첨여부는 전화(041-540-2269)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산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산=리량주기자



## 청양군 자매도시 몽골 바타르빌렉 국회의원과 간담회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국내·외 자매도시 간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발전 및 유대강화를 위해 지난 28일 몽골 대사관에서 자매도시 몽골 사절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호 우호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일정 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측 대표 바타르빌렉 국회의원은 그동안 각별한 인연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다져온 청양군과의 만남을

희망해 간담회가 이뤄졌다. 바타르빌렉 국회의원은 몽골 아르항이의 전 도시사로 2016년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지난 2015년 11월에는 청양군을 방문해 농업기술센터,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의 선진농업시설을 견학하는 등 청양군 농업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이석화 청

양군수는 양 도시 간 상호발전을 위해 지리를 마련해 준 바타르빌렉 국회의원과 B. 어서흐바야르 아르항이도 의장, TS.프르나상 도시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앞으로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상호 우호협력력을 증진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바타르빌렉 국회의원은 그동안 청양군에서 경제, 문화, 농

업분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 몽골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특히 아낌없는 의료봉사 지원 및 선진 영농기술 전수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화답했다.

한편 청양군과 몽골 아르항이 주는 2007년 7월 우호교류를 체결한 이래 의료봉사, 농업선진기술 및 문화 교류를 통해 자매도시 간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한편, 상호 국가 간 이해 폭을 넓히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 있다.

청양=정성범기자



우리/동네

###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총력

서천군,해안쓰레기 수거 위한인력·장비모두 갖춰

해양관광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송림 스카이워크, 해양산책로 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널려 있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며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해양환경미화원 6명을 공개채용에 이달 초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예산 2억 1천만 원을 투입해 굴삭기, 집게차량, 화물트럭 등 해양쓰레기 직접 수거 및 운반 시스템을 모두 갖춰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준비를 마쳤다.

또한, 강하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항포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도사지리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 다양한 해양환경 정화 사업을 통해 84km의 리아스식 해안가로 밀려오는 쓰레기를 인력과 장비를 동시다발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전량 수거를 통해 상시 깨끗하게 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올해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추진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해 총 18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다.

김진호 해양수산과장은 "사계절 서천의 해안가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보면서 힐링과 활력을 얻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추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해양수산부의 우수기관, 충청남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천안시 의료관광 기반 구축 '탄력'

복지부 의료관광 공모사업 선정...국비 2억3천만원 확보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소장 조만호)가 '2018년 보건복지부 의료관광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3000만 원을 사업비로 확보하고 의료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의료관광 공모사업은 지역의 대표 의료기술을 발굴하고 특화시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4개 시·도가 공모 신청해 최종적으로 7개 시·도가 선정됐다.

시는 충청남도, 단국대학교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관내 병·의원 18개소와 ▲수면장애 ▲대장암(복막절제술) ▲유방암 ▲뇌동맥류 ▲피부 ▲치과 ▲부인병 등 고부가가치 의료기술의 브랜드화를 내세웠다.

그동안 시는 설문조사, 의료코디네이터 67명 양성, 질환별 동영상 제작, 국외의료봉사, 다국어 홈페이지구축, 간담회, 심포지엄, 벤치마킹, 다국어 안내책 제작 등 의료관광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왔다.

이와 함께 외국인환자 유치에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조성해 특화된 외국인환자 유치모델 개발과 국외홍보 설명회, 팸투어 개최 등 국외 마케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해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관광지원위원회구성,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및 공동 브랜드화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관광 클러스터는 크게 일반진료와 치과진료로 나눔 클러스터를 조성해 세분화하고 외국인 이용객 선택의 폭을 넓혀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조만호 소장은 "이번 국비 공모사업 선정은 계기로 관내 잠재력 있는 의료기술을 특화시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외국인환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체질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운동화 끈 동여매고 현장속으로

이용우 군수, 추진상황 보고 청취 후 향후 추진방향 논의

부여군은 지난 29일 이용우 부군수님을 비롯해 부서장이 모두 참여해 '2018년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민선 6기 공약 및 주요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현안사업장을 직접 찾아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해 사업의 추진력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우 군수는 신동엽 시인의 길, 구드래 관광자원화 사업, 반산저수지 수변개발, 백제역사 너울옛길(수북양양버스) 조성, 청년공예 K-클러스터 구축사업, 백제역사문화 상상무지움,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웅천전 고향의 강 정비사업, 부여읍 소재지 정비사업 등 16개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향후 추진방향을 부서장들과 토론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했다.

이용우 군수는 "주요사업뿐만 아니라 시장활성화, 농어촌도로개선, 선진교통체계 구축, 노인·청년 일자리 등 서민경제와 소소한 것까지 세심하게 살펴보고"라고 말했다.

부여군은 이날 현장방문을 통해 주요 16개 사업의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발견된 문제점과 미진한 사업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군정을 수행하고, 세계유산도시에 걸맞은 명품도시, 모두가 잘사는 도시, 지속가능한 부여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세라믹 소재산업의 메카로 첫발

천안아산역세권 R&D집적지구에 에너지자립형 하우스 세라믹소재 산업기반 구축

천안시가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자립형 하우스 세라믹소재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시는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한국세라믹기술원, 세라믹산업 관련 6개 단체와 에너지자립형 하우스 세라믹소재 센터 건립·공동이전을 위한 합동 업무협약 체결했다.



하는 통합형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반이 구축되면 세라믹소재 관련 전문인력을 연 250여 명 양성·교육해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지원하고 구직자들은 기술 교육을 받아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열재, 스마트 윈도우/코팅제, 건축 내·외장재, 센서, 태양광

ESS 등 세라믹 소재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뿐 아니라 지역에 세라믹소재 전문기업들을 신규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세라믹 연합회, 한국유리 산업협동조합, 대한내화물공업협동조합, 한국점토벽돌공업협동조합, 대한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 등 6개 관련 단체들도 공동이전

한다.

단체들은 국책연구기관인 세라믹기술원을 지원하고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R&D기획, 개발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한국세라믹기술원과 6개 관련 단체의 이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오석교 기업지원과장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앞으로 한국세라믹기술원, 관련 공업협동조합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세라믹 관련 전통 산업에 ICBM(IT, Cloud, BigData, Mobile)의 약칭) 기술 접목, 에너지저장형 스마트 하우스 구축사업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지역산업 발전을 통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종호기자

### 계룡시 충남 건축·공공디자인 문화제 본격 가동

추진위원회 개최...도민과 공유·소통하는 문화제로 승화



계룡시시장 최홍묵은 28일 오후 계룡시청 회의실에서 최홍묵 시장과 충청남도 국토교통국장, 추진 및 자문 위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충남 건축·공공디자인

문화제 발대식과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계룡시에서 개최되는 충남 건축·공공디자인 문화제의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한 13

명의 추진위원을 위촉하고 문화제 장소 및 행사기간, 주제어 선정 등 행사 세부사항을 협의하고자 마련됐다.

추진위원회는 건축 및 디자인 분야 대학교수와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했고, 문화제 공모요강에서 운영 계획, 사후 평가 등 행사 전반에 걸친 자문·의결 기능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를 통해 위원회는 4월 까지 예산안, 공모요강을 확정하고, 오는 9월 도내 건축사와 교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은 뒤 응모·접수·심사 등 절차를 진행하고 10월중 문화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건축·공공디자인문화제 추진 방향을 ▶도민과 공유·소통하는 건축문화 행사 ▶충남의

문화정체성 및 역사성을 담은 공공디자인 저변 확산 ▶문화체험 및 정보교류의 장 마련 ▶공모전을 통한 창작의욕 고취 등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최홍묵 시장은 "2018 충남 건축·공공디자인 문화제가 미래 공공디자인의 눈부신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룡시에서도 보다 인상적이고 특색 있는 건축문화제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 충남 건축·공공디자인 문화제는 충청남도와 계룡시가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와 충남건축사회와 충남공공디자인협회와 주관하는 행사로, 건축문화발전과 공공디자인 저변 확산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 하고 건축인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의 장 마련을 위해 실시된다.

### 탐정호 머물고 싶은 관광지 채비 '본격'

논산시, 개발·투자·행정 지원 등 다양한분야 협력

논산시(시장 황명선), 한국농어촌공사 논산금산지사(지사장 윤석근), ㈜청암(회장 이인규)이 탐정호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논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논산금산지사, ㈜청암은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황명선 논산시장, 윤석근 한국농어촌공사 논산금산지사장, 이인규 회장, 김형도 논산시의회의장 등 주요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탐정호 관광지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탐정호의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개발 및 투자는 물론 계획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창호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청암은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모토 아래 1996년 연산면 백제리에 설립,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대표적인 중견기업

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탐정호 관광 개발에 300억 원 규모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간 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2011년 수변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며, 논산에 적합한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민간 자본기출과 소통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전문적인 개발과 운영이 필요한 사업에는 민간투자를 추진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장점과 공공기관의 장점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또 다른 민간 투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662ha 넓이의 탐정호는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형으로 최대 3천만 여 톤의 담수를 저장할 수 있으며, 지난해 9월 준공한 길이 2.94km규모의 둘레길인 '탐정호 수변데크길'은 아름다운 도보여행 길의 명소로 벌써부터 유명세를 타고 있다.



시는 논산의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는 탐정호에 숙박형 리조트 등 인프라가 구축되면 세수와 일자리 증가는 물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논산만의 문화가 어우러져 문화·관광·레저산업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마다 논산을 찾는 130만 명 이상의 혼련병과 가족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시는 관광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탐정호에 많은 힘을 쏟는 것은 탐정호가 우

리 지역의 미래발전에 중요한 동력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며, "논산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코스와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탐정호 테마로 한 도시민의 농촌체험 및 체류공간인 '탐정호농촌테마공원' ▲탐정호의 자연을 체험·학습하는 '탐정호호림생태체험학습관' ▲2.94km의 길이 '탐정호수변데크길' ▲600m의 동양 최대 '탐정호출렁다리' 등 탐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조성을 위해 관광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 계룡시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특별활동 전개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8일 중 주말 4일간 집중 운영

계룡시시장 최홍묵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8일 중 주말인 4일간을 대대적 산불방지 특별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산불전문진화대 및 감시원 37명 등 각 마을에 배치해 마을이장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산불방지 특별활동 기간 동안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를 단속키 위해 30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산불감시 책임마을을 지정하고 특별감시활동에 나선다.

또한 산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농·밭두렁 소각 및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시 인화물질 사용 등에 대한 제도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과 입산객의 주의만이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동 정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구본영 천안시장= 30일 오전 11시부터 복면 용암리 일원에서 열리는 제 73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서북구 보건소, 동남구보건소, 문화도서관 사업소, 쌍용도서관, 맑은물사업소를 방문해 직원들 격려.

### 옛살비야시장 그랜드오픈

황명선 논산시장= 30일 오후 7시 화지 중앙시장에서 개최되는 논산화지시장 '옛살비야시장 그랜드오픈' 행사에 참석.

### 애향정학회 이사회

최홍묵 계룡시장= 30일 오후 4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계룡시 애향정학회 이사회 참석.

### 업무협약식

노박래 서천군수= 30일 오후 2시 군수실에서 열리는 장사시절(공설 남골당) 운영 업무협약식에 참석.

### 귀농인희망센터 준공식

이용우 부여군수= 30일 오후 3시 남면 송학리에서 열리는 귀농인희망센터 준공식에 참석.

### 논산시 꽃도 나무도 심고 꿈도 심어요

### 제73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열려

논산시시장 황명선은 29일 논산시민공원에서 제73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갖고 영산홍 등 4만여본을 식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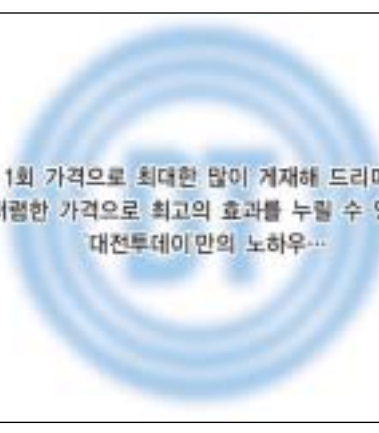
이날 행사는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해 논산계룡산림조합,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학생, 공무원 등 1천5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성스러운 손길로 나무와 꽃심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관내 중·고등학생 600여명도 함께 참여해 청소년들의 꿈과 소망을 기원하는 나무를 심으며 숲과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자리가 됐다.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공원을 목표로 조성된 시민공원은 벽천폭포, 거울연못, 어린이놀이기구시설, 경관조명 등 다양한 시설물과 8만여본의 나무와 꽃들이 조화를 이뤄 명실상부한 휴식과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5월에 족욕체험장이 조성되고 주말에 국악, 민요 등 전통음악 공연부터 클래식, K-POP 등 다양한 장르의 숲속버스킹이 열리면, 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민들까지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나무심기와 숲 가꾸기는 깨끗한 공기 조성은 물론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첫걸음"이라며, "나무심기 행사를 통해 숲의 소중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정

환경성건강센터 개관식



오시덕 공주시장은 30일 오후 2시 환경성건강센터에서 열리는 공주시환경성건강센터 개관식에 참석.

제73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김동일 보령시장은 30일 오전 10시 청소면 성연리에서 열리는 제73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여성친화도시 시민 모니터링단 위촉식 참석.

새봄맞이 국토대청소 운동



이완섭 서산시장은 30일 오전 6시 30분 부춘동 일원에서 진행되는 새봄맞이 국토대청소 운동에 참여, 오전

10시 도비산 주차장에서 열리는 부석면 식목행사에 참석, 오후 2시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정책제안 연구발표회에 참석.

농약보존회장 이취임식



박동철 금산군수는 30일 오후 7시 금산웨딩게슈서 열리는 농약보존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공산성 일대 청렴캠페인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30일 오전 10시부터 공산성에서 열리는 '공산성 일대 청렴캠페인'에 참석하고, 오전 11시 공주시청에서 열리는 '공주시백제문화선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오후 2시 환경성건강센터에서 열리는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뒤, 오후 2시 30분 공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정서행동특성검사 교사 연수'에 참석.

제73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조민행 보령교육장은 30일 10시 30분에 보령시 청소면 성연리에서 열리는 제73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에 참석, 31일 10시에 웅천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웅천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

# 서산시 농어촌 도로망 대폭 확충

## 올해 42개 사업지구 246억원 투입... 이동 편의 증진 및 물류비 절감 기대

서산지역 농어촌 마을 곳곳을 잇는 도로망이 올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서산시는 올해 총 246억원을 들여 모두 42개 사업지구(총길이 49km)에서 농어촌도로망 개설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상협약이 끝난 11개 사업장(12km)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나머지 31개 사업장(37km)은 공사 착공을 위한 보상협약에 본격 나선다. 시는 보상이 완료된 사업장지에 연보다 많고 전신주와 지하매설물 이설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어 올해 개통되는 노선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대산읍 발천포 해수욕장으로 가는 시도12호선(1.22km)과 운산면 한우개량사업소 목초지를 통과하는 농어촌도로 갑산선(0.65km) 포장공사가 연말 준공 목표로 추진된다. 이들 노선은 특히 관광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매년 통과 교통량이 늘고 있어 시는 조기 개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인지면 성리 차성선 확보사업(1.22km)과 성연면 예덕리 예덕선 공사(0.82km), 주발 교동방이 급증하는 읍면 상흥리 상흥선(0.55km) 도로공사도 토지보상이 마무리되

고 있어 올해개통은 무난할 전망이다. 이 밖에 북석면 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 길목인 송갑선 도로(1.5km)와 지곡면 오토벨리 산업단지로 가는 은부선 공사(0.65km) 등 장애 교통수요에 대비한 도로망 구축 사업도 손실보상 협의가 본격 추진된다. 김찬유 서산시 도로과장은 "농어촌 도로망은 도시와 농어촌을 잇고 각종 물류수송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도로 개설을 위한 행정 절차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 “보령 농특산품으로 만든 전통주 맛 보세요”

## 명맥 끊긴 '가양주(家釀酒)' 문화 복원 및 쌀 소비 촉진 기여



보령시가 우리나라의 전통술 문화인 '가양주(家釀酒)'를 장려하기 위해 전통주 주조사 자격반 운영 및 전통주연구회 육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과거 전통주는 일본이 나라를 빼앗고 1909년 주세법을 제정해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를 양성주, 증류주, 혼성주 등으로 3종 10품목으로 분류했고, 1916년에는 주세법을 제정해 조선 재래의 방법을 의해 제정한 탁주, 약주 및 소주까지 포함시키며 전통주는 지위를 감추게 됐다. 여기에 식량부족을 이유로 1960년대 순곡주(純穀酒) 제조를 금지하면서 전통주 산업은 명맥마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됐으나, 2016년 정부에서는 전통주 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일환으로 막걸리(탁주)를 대상으로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를 신설하면서, 바야흐로 하우스막걸리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에 앞서 보령시는 지난 2014년부터 전통주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과제교육, 전통주 제조 전문교육, 전통주 홍보행사 등 우리 술을 알리고 발굴하는데 꾸준한 지원을 했고, 올해는 농업경영인, 생체개조 등 농업관련자 뿐만 아니라, 지역인, 주부 등 31명이 활동하며 보령만의 전통주를 만들어내고,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전통주 주조사 자격반 수료식을 갖고, 전문 인력 27명을 배출했으며, 이중 민간자격

시험인 전통 가양주 주조사 3급 응시해 전원 합격하는 소기의 목표도 달성했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보령시 전통주연구회 회원들이 주관해 전통주 작품전시·시음회를 개최하며 보령의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를 주조하게 됐는데, '술향', '미산미주', '홍피리향주' 등 자체 연구 개발한 14종의 과제 연구주에 대한 시음평가는 호평 일색이었다. 같은해 11월 열린 제7회 전국가양주 주인(酒人) 선발대회에서는 보령 전통주연구회 조성희 회장이 대상을, 김정순 회원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경사도 맞았다. 조성희 회장이 선보인 '미산미주'는 찹쌀과 누룩으로 빚은 탁주로 보령호를 끼고 있는 산간지역의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가 있는 청정지역인 '보령 미산면'과 연계해 이름을 지었다. 현재는 농가를 운영하는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방풍주, 흑미주, 국화주, 송송주술) 등을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는 표고버섯 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 및 개발로 지역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여나간다는 포부이다. 연구에 그치지 않고, 판매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는 영농조합법인 '보령전통주'를 설립했으며, 주점집사생원과 식약청 영업허가도 받았다. 보령=김태성기자

서산=김정한기자

우리/동네

제7회 사회공헌대상 시상식

# 공주시 2년 연속 수상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조성에 앞장선 결과 지난 29일 서울 코리어나 호텔에서 열린 제7회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소외계층지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사회공헌대상은 더불어 살기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모범적인 사회공헌 기업 및 기관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된 시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시는 기부문화 확산으로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를 조성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유도를 통해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차지단체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행복실현 맞춤형"의 시정목표 아래 시민모두가 행복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하여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나눔 긴급지원 제도 △희귀난치성 장애학생 돕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고마공주 빵 나눔터 운영 △연탄나눔 행사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 △1+3 행복·사랑 집짓기 등이 대표적인 시책이다. 또한,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이웃돕기성금 모금 실적은 14억 3천만원으로 시민 1인당 모금액이 1만 3191원을 달성, 따뜻한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명실공히 행복한 나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공주시 대표 시책 중 하나인 '사랑을 나누는 고마공주 빵 나눔터'는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약을 체결하고 소외계층을 돕는데 협업체 상생의 동반자로서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오시덕 시장은 "사회복지 수요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많은 시민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고 나눔과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어 공주의 밝은 미래가 보인다"며,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공주=정성범기자



# 금산군 취약계층 이동 건강안전망 확대

보건소-금산군지역아동센터 MOU, 건강실천 지원 지역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소장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건강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인적, 물적 자원의 상호교류를 통해 아동들의 통합건강증진과 서로 돕는 지역사회 기능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금산병화 지역아동센터, 꿈은 싹는 지역아동센터, 도란도란 지역아동센터, 아름다운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산=주연기기자

# 장애인 특별한 '마을학교' 개강

서산시, 다양한 자료를 활용 한글 등 교육 진행 이 마을학교에는 서영철(69·읍내동)어르신을 비롯해 뇌병변, 지적장애 등의 장애를 안고 있는 8명의 학생이 입학했다. 이날 열린 개강식에는 이완섭 시장을 비롯한 주민 30여명이 참석해 이들의 입학을 축하해줬다. 시는 이번 마을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고 한글 등 교육의 진흥을 계획했다. 이완섭 시장은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달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의 벽을 허물고 함께 돕고 서로 의지하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06년부터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의 문해교육을 위해 마을학교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8개 마을 142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마을학교를 새롭게 열 계획이다. 서산=김정한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입이 개제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문의 ▶ KBS 470-7320 ▶ MBC 220-2348-9 ▶ TJB 281-1101 ▶ 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TV 하이라이트

▲ 같이 살래요 (31일, KBS 오후 7시5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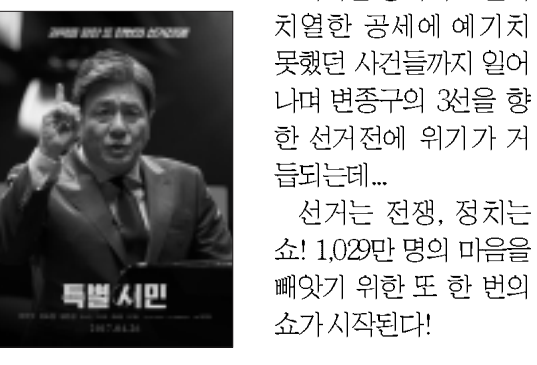
유하(한지혜)는 선하(박선영)에게 만행을 저지른 희경(김윤경)에게 분노하여 성운(황동주)을 찾아가게 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성운의 태도에 미련을 버리게 된다. 재형(허희환)은 다연(박세완)의 연락에 다연이 가진 결로 오해해 다연을 만나게 된다.

케이블 영화

▲ 특별시민 (31일, CBN 오후 6시20분)

지금껏 본 적 없었던 대한민국 선거판의 세계 신성한 소재, 입체적인 캐릭터로 흡입력 더한다.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선거야" 오직 서울만 사랑하는, 발로 뛰는 서울시장 '변종구' (최민식) 하지만 실은 어느 정치인보다도 최고 권력을 지향하며 이미지 관리에 철저한 정치 9단이 다.

선거 공작의 일인자인 선거대책본부장 '심혁수' (곽도원)를 파이트너로 삼고, 겁없이 선거판에 뛰어든 젊은 광고 전문가 '박광' (심은경)까지 새롭게 영입한 변종구는 차기 대권을 노리며, 헌정 사상 최초의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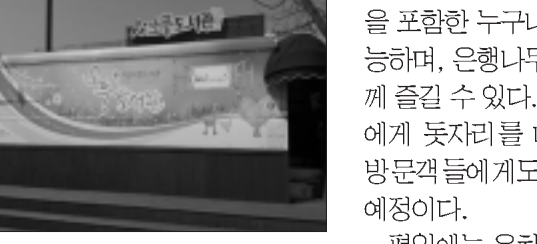
세한대 태권도학과 최고의 명문으로 '우뚝'

전국 태권도대회 각종 메달 획득 그 실력 인정



세한대학교(총장 이승훈) 태권도학과가 전국대회에서 각종 메달을 휩쓸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대회는 태권도 저변 확대를 위해 한국 태권도 실업연맹이 주최하고 광양시태권도협회가 주관한 대회로 전국에서 1,000여 명이 전국 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7개를 차지했다.

아산 은행나무길 '소풍도서관' 운영 재개



아산시립도서관(관장 권경자)은 4월 1일부터 은행나무길 '소풍도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은행나무길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고, 독서를 통해 인문학적 견해를 넓혀준 소풍도서관이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시민 결의로 다가간다. 시민이 직접 운영하는 소풍도

미연(장미희)은 자신의 위용을 효섭(유동근)에게 과시하기 위해 만발의 준비를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효섭과 최악의 재회를 하게 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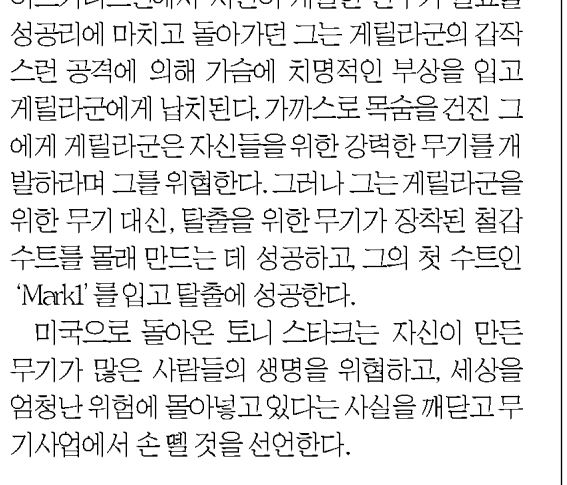


▲ 데릴남편 오작두 (31일, MBC 오후 8시45분)

결혼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나를 던지는 용기 승주(유이)는 오혁 프로젝트에 더욱 매진하는 가운데, 승주를 향한 위협은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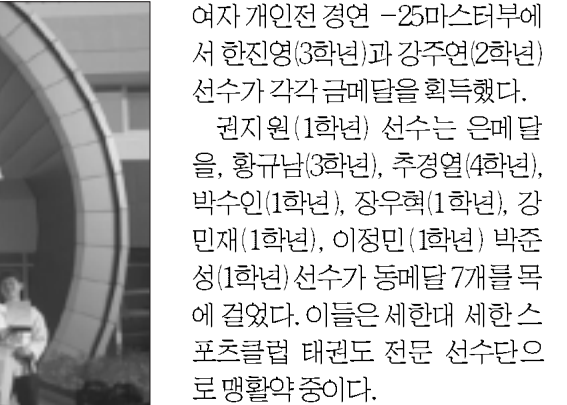
아이언맨 (31일, 채널CGV 오후 2시20분)

하이테크 슈퍼 히어로의 탄생! 이제 업그레이드는 끝났다. 천재적인 두뇌와 재능으로 세계 최강의 무기기업체를 이끄는 CEO 이자, 타고난 매력으로 셀러브리티 못지않은 화려한 삶을 살아가던 억만장자 토니 스타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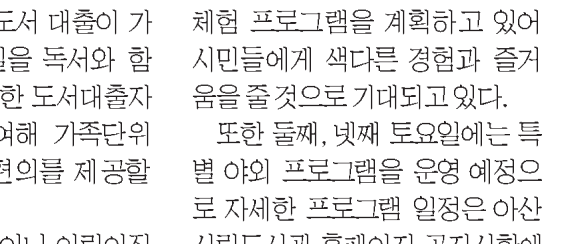
세한대 태권도학과 최고의 명문으로 '우뚝'

전국 태권도대회 각종 메달 획득 그 실력 인정



세한대학교(총장 이승훈) 태권도학과가 전국대회에서 각종 메달을 휩쓸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대회는 태권도 저변 확대를 위해 한국 태권도 실업연맹이 주최하고 광양시태권도협회가 주관한 대회로 전국에서 1,000여 명이 전국 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7개를 차지했다.

아산 은행나무길 '소풍도서관' 운영 재개



아산시립도서관(관장 권경자)은 4월 1일부터 은행나무길 '소풍도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은행나무길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고, 독서를 통해 인문학적 견해를 넓혀준 소풍도서관이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시민 결의로 다가간다. 시민이 직접 운영하는 소풍도





**서천교육지원청, 등굣길 생명존중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희)은 신학기 행복한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생명존중 및 학교폭력예방의 일환으로 등교맞이 하이파이브 행사를 29일 장항중학교에서 실시했다.



**당진 석문면 주민자치회, 재능기부 문화공연** 당진 석문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석렬) 위원들이 지난 12일부터 29일까지 석문면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 강사들과 함께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펼쳤다.



**대덕대·한밭대 공동 주최 IP지역인재양성세미나 개최** 대덕대(총장 김상인)는 28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취업연계 IP지역인재양성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대전지역 P기업들을 초청해 한밭대와 공동 주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KEB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적십자 특별회비 천만 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회장 유창기)는 지난 29일 KEB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강태희 본부장으로부터 적십자 특별회비 1천만 원을 전달받았다.



**대전현충원 전 직원, 식목일 맞아 소나무 100주 식재** 제73회 식목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전 직원들이 더 푸르고 울창한 숲을 만들기 위해 29일 후문 주변에서 '소나무 100주'를 식재하고 있다.



**(사)공주시자원봉사센터, 사랑담이 봉사단 발대식 개최** (사)공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8일 '사랑담이 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청년 자원봉사활동의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 한밭대학교 '청춘이여 푸르러라' 주제로 동아리 활성화 위해 마련

# 2018 동아리 연합 페스티벌 개최

국립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28일과 29일 이틀간 '2018년 동아리 연합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한밭대 총동아리연합회(회장 이민혁)가 주최한 이 행사는 "청춘이여 푸르러라"를 주제로 동아리 활성화 해 대학문화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한밭대에서 활동 중인 학생동아리 30여개가 참가해 각 동아리별로 준비한 다채로운 이벤트와 활동 소개가 이뤄졌다.

한밭대 도서관 앞 광장을 중심으로 캠퍼스 곳곳에서 음악 동아



리의 다양한 버스킹이 펼쳐지고, 야구공 던지기, 다트게임, 콜라 빨리 마시기 등의 게임이 진행된 가운데 참여한 학생들의 얼굴

에는 즐거움이 가득했다.

행사를 주최한 한밭대 이민혁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이 '청춘이여 푸르러라' 동아리 페스티벌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대학생활의 문화와 낭만을 찾아 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페스티벌이 이틀간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동아리 활성화로 이어져 취업난 등 어려운 사회분위기 속에서 침체돼 가는 대학문화를 되살리고, 학생들에게는 희망과 웃음을 되찾아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이정복기자

## 온양3동 '소쿠리' 운영 수익금 전달

소통나눔공간 소쿠리 통해 수익금 중 일부 기부



아산시 온양3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현상)가 소통나눔공간 '소쿠리'를 통해 모아 온 수익금 중 일부를 온양3동 행복마을추진단에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소통나눔공간 소쿠리는 온양3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2016년 11월 개소해 온양3동 주민들의 따뜻한 쉼터 역할을 해왔다. 소쿠리는 전문 자격을 갖춘 바리스타가 상주하며 커피 등 다양한 음료를 제공하고 음료값 대신 이용객들의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현상 위원장은 "이번에 전달된 수익금은 그 동안 소쿠리를 찾아주신 주민들께서 도와주신 것으로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소쿠리가 주민들의 힐링의 장소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위기청소년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산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산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이사장 윤희정)는 28일 범죄 사무실에서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윤희정 이사장은 "학교폭력 피해자와 위기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의 전문기관인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서로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이들을 보호·지원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주영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범죄피해지원센터가 하는 일을 세심 느끼게 되었고 앞

으로 센터에서 위기청소년 관리를 하면서 센터와 서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보호·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산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는 2006년에 개원하여 2017년말까지 934명의 피해자에게 지원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피해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총 2,205건의 상담 및 경제·의료·주거·법률지원, 신변보호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 저소득층 60세대 사랑의 밑반찬 지원

대회동복지만두레·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회동복지만두레(회장 조영희)와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최익수)가 지난 28일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회동 저소득층 60세대에 도움이 손길을 주고자 돼지불고기, 열무김치 등 사랑의 밑반찬을 지원했다.

소외된 계층을 위해 각종 봉사활동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대회동복지만두레와 협력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매일 물품과 현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조영희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와주시는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감사드립니다"며 "지원 받은 음식 등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위해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당진 서야고 '애들이 밥 먹자' 캠페인 실시** 당진 서야고등학교(교장 단현순)는 29일 정문에서 아침 등교시간을 이용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당진 남부사회복지관의 협조를 받아 '애들이 밥 먹자' 캠페인을 실시했다.

**대전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박용훈 대구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임명**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박 사무처장은 4월 1일부터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 및 배분 사업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박용훈 사무처장은 "대전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중점과제를 해결하고, 시민들께서 기탁하신 소중한 성금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전했다.

박 처장은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대구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등을 역임했다.

송병배기자

## 청양군 6차산업연구회

6차산업 토크콘서트 개최

청양군 6차산업연구회(회장 유성애)는 29일 전북 고창의 토굴농장과 사랑농촌꽃 교육농장에서 농촌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토크콘서트를 실시했다.

전통 장류를 생산하는 토굴농장은 귀농귀촌 7년차의 농산가공 생산업체로 생산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크콘서트에서 숙성된 저역시 토크콘서트, 기능성 명품장, 고창 토종풍으로 정직하게 만들고 있다. 지역에서 나는 고창 토종콩을 이용해 처음에는 발효소리는 브랜드로 문명하고 매일 유업의 상하농원에 임접하게 했으며, 구수하고 냄새가 없는 청국장, 고창 약원장 및 한지식 만청 고추장에 이어 맛돌호박으로 한지유식까지 생산하고 있다. 더 나아가 농촌체험 교육농장까지 운영해 6차 산업의 연계 방안 우수사례로 꼽혔다.

연구회는 이날 또 사랑농촌꽃 교육농장에서 사계의 이름 다듬을 느껴보고 시들지 않는 드라이 천연 인테리어 시멘트스 화분에 대해 체험해보면서 농산물 6차산업화를 주제로 토크콘서트 개최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에 가공, 판매, 체험까지 곁들여 고소득으로 연결하는 6차산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6차산업 연구회의 역량강화와 농촌생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 대전대천인한방병원 이남헌

진료교수, 인명사전 등재



대전대학교 천안 한방병원 이남헌<사진> 진료교수(한방내과)가 최근 세계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2018년 판에 등재됐다.

한방임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연구와 풍부한 임상진료로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이남헌 진료교수는 한방내과 중앙센터도 함께 이끌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고추파염염치료를 통한 항암치료 결과를 SCIE급(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바 있다. 아울러 대한한의학회 이사 및 미국통합의학회(SIO)정회원,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대내외적인 활발한 활동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인명사전에 등재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남헌 진료교수는 "이번 '마르퀴즈 후즈 후' 인명사전 등재에 대해 한방 임치료를 위한 그 동안의 연구활동과 업적이 평가 받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며 "한의학적 임치료를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899년 미국에서 출간된 '마르퀴즈 후즈 후'는 미국 인명정보기관(ABI :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의 하나로 꼽히며, 세계 215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업적을 이룬 인물을 선정·소개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8-29 대우빌딩 7층



### 기자 수첩



송병배 기자

이전에는 뉴스기사를 종이로 된 신문으로만 접했다. 하지만 정보통

### ‘페이크뉴스(가짜뉴스)’ 기승 부린다

신기술이 발달하고 언제든지 인터넷을 사용할수 있는 스마트폰이 생겨난 뒤로 우리는 뉴스기사를 종이신문 외에도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볼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지난해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중 47.0%가 유료, 무료, 인터넷 신문중 1개 이상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2위 역시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해서 본다(37.2%)였다.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뉴스기사를 보고 있다. 뉴스기사를 접할수 있는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순기능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역기능도 있다. 역기능은 정보의 홍수속에서 페이크뉴스(Fake News), 즉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이로 인해 뉴스구독자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특히 페이크뉴스를 많이 접한 플랫

폼은 바로 SNS였다. SNS는 사전 검열없이 무분별하게 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만큼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이 올라오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한 SNS 플랫폼 CEO는 페이크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언론사를 위한 새로운 계계 플랫폼을 만드는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크뉴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언론사나 우리 기자들은 무분별한 소식 나르기보다는 팩트(사실)인가에 대한 보도가 필요하다.

### 기고



한동원

ETRI 소프트웨어·콘텐츠연구실장

지난 16일 정부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이 결합된 IoT 가전 및 스마트 홈 산업 활성화를 위한 'IoT 가전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대기업의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중소기업에 개방하여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가전, 통신, 건설, 홈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다양한 이(異)업종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상생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된 내용이다. 'IoT 가전 발전 전략'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사물인터넷 가전 기반 스마트 홈 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한 대규모 실증 환경 조성 ▲

### 4차 산업혁명과 사람 중심 스마트 홈

스마트 홈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종간 협력체계 구축 ▲빅데이터, 인공지능, 첨단센서 등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제고와 기술 혁신 지원 ▲스마트 홈 관련 제도 개정 및 표준 정비 ▲한국형 스마트 홈 수출 확대의 인증 지원 등 스마트 홈 산업 관련 산·학·연·관 상생 협업을 위한 전(全)방위적 발전 전략이다. 국내 가전업체와 이동통신업체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와있다. 시장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IDC(2016) 발표자료 '사물인터넷 발전을 위한 준비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사물인터넷 관련 산업적, 기술적 준비성에 있어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건설, 통신, 가전 등 다양한 생태계가 주거 공간에서 제품과 서비스로 융합해 사물인터넷은 가전기기의 연결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음성 인식과 인공지능 기술 또한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주거 편의성, 생활 안전성과 보안성, 에너지 절약과 같은 주거

공간과 생활환경의 혁명을 꾀하고 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풍요로운 스마트 홈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통해 '지능형 AI@홈' 모델 발굴 등 지능형 스마트 홈 확산으로 가전 내 생활혁명의 실현을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 홈은 가족 구성원 특성에 맞게 제품과 서비스가 이용 환경과 사용 유형에 따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스마트 홈서비스 확대는 IoT 가전의 수요 촉진과 더불어 관련 산업적, 기술적 확보는 국내 기업 및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있어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로 각 세대별로 거

주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스마트 홈의 수요 측면에서 주거 공간과 생활환경을 고려할때, 가구 형태의 변화는 큰 변수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맞는 전략수립 또한 새롭게 요구된다. 통계청(2017)에서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2015년 518만 가구(27.2%)에서 2025년에는 670만 가구(31.9%)로 대폭 늘게 된다. 65세 이상의 1인 가구 또한 2015년 120만 가구(23.2%)에서 2025년에는 199만 가구(29.7%)에 이르게 된다. 2035년에는 760만 가구(34.3%)로 폭증하며 3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따른 연명별, 생활 패턴별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실증단계부터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이번 정부의 발전전략을 기반으로 우리의 복지와 안전, 편의의 3박자가 갖춰지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사람 중심의 스마트 홈'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 사설

### 동물학대 법으로 다스린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학대의 범위 또한 넓어진다. 바뀐 법안에서는 △유실 및 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동물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씨움은 제외) 등을 추가했다. 학대 행위를 상습적으로 할 경우 해당 형의 1/2까지 기증 처벌하고, 한 회사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해당 처벌을 받은 경우 법안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박이나 경품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 및 제공하거나, 영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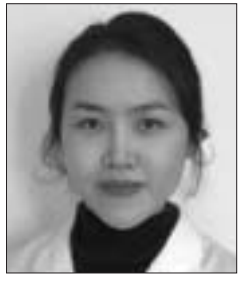
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한다. 반려동물 관련 준수사항 위반시에도 처벌이 강화된다. 시민 사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신고 포상금제인 '개파라치' 제도는 무기한 연기되었으나 동물 유기, 반려동물 미등록, 목줄 미비 등에 대해서 과태료가 일제히 상향된다. 동물 유기시 과태료는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고, 동물 미등록시에는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현행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에서 앞으로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동물학대 행위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굿바이, 공인인증서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된 공인인증서 제도가 올해 안에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했다. 국회 통과 과정이 남았지만 공인인증서를 없애자는 여론이 높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도입된 지 20년 만에 인증제도가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셈이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1999년 전자서명법 발효로 시행됐다. 초기에는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만 쓰였지만 사설 인증서보다 우월한 법 지위로 공공과 금융기관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표 인증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2015년 3387만건, 2016년 3545만건, 2017년 3792만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 논리를 외면하고 과도하게 밀어붙임에 따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규제를 혁신하면 등장하는 만큼 폐쇄였다. 실제 폐쇄도 컸다. 공인인증서 중심으로 시장 독점이 이뤄지고,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

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불편했다. 실행을 위해 액티브X'를 몇 단계에 걸쳐 설치하고 금융기관을 찾아야 했다. 인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외국인은 전자상거래에 제약이 많았다. 개정안으로 수년 동안 묵혀 온 규제가 사라졌다. 그렇다고 인증제도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었다는 건 아니다. 기반 보안 체계인 '공개키(PKI)' 기술은 큰 성과였다. PKI 기술은 여전히 안전성 면에서 탁월, 앞으로 여러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야 하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사물인터넷(IoT)이 대표 사례다. 데이터를 주고받을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여부를 PKI가 해결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독점이 무너지면서 생체 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점도 긍정 요소다. 모두 규제가 사라지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기회다. 시장이 항상 정당일 수는 없다. 강한 규제와 시장의 역동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공인인증제도가 이를 실증했다.

### 건강 칼럼



김효정

대전비로세움병원 신경과원장

어지럼은 두통과 함께 신경과를 방문하는 환자가 호소하는 가장 흔한 증상의 하나로서 대부분 경과가 양성이나 이것 자체가 신경학적 질환의 한 증상일 수 있으므로 원인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필수적이다. '어지럽다' 하고 표현하는 증상들은 실제로 여러가지 다양한 느낌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병력 청취를 통해 환자가 어떤 증상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진단의 첫걸음이다. 어지럼증에서도 현훈(주위 사물이나 자신이 빙빙 도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의미)에 가까운 증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원인 질환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항상 분명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어지러움증은 병갑방갈 또는느낌이나머리가 멍한 느낌이나 균형이 잡히지 않는 것 같은 불안정한 느낌을 말한다. 어지러움증은 많은 질병에서 나타나는 증세이다. 어지러움증은 머

### 어지럼증!

리를 다친 후에 생겼거나 마비 증세가 있거나 호흡곤란, 시각장애 등과 함께 나타날 때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회사원 양모씨(49세,여)는 평소 약간의 현기증은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최근 갑자기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나 고개를 돌릴 때, 앉은 상태에서 고개를 숙일 때 수 초에서 일 분 가량 지속되는 빙빙 도는 어지러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증상이 심할 때는 메스꺼움, 구토도 동반되지만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증상이 좋아졌다. 병원을 찾은 양모씨의 진단은 '양성 돌발성 체위성 어지러움'이란 생소한 병명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지러움증이 생기기 전 증후나 원인이 원인

라 생각한다. 어지러움증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생기므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어지럼은 크게 생리적 어지럼과 병적 어지럼으로 나눌 수 있다. 생리적 어지럼은 높은곳현훈, 말미 등과 같이 정상 감각계와 운동계가 과도한 자극에 의해 흥분되어 나타나는 증상이고 병적 어지럼은 다시 안뜰계(귀)의 전정기관을 침범하는 안뜰어지럼과 안뜰계 이외의 병에 의한 비안뜰어지럼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안뜰어지럼은 귀의 미로와 전정신경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말초어지럼과 안뜰 신경병이나 그보다 높은 수준 이상의 중추어지럼으로 나눌 수 있다.

### 충남도 청렴도 상위권 유지 행정력 집중

지난해 전국 최고 청렴 자치단체로 이름을 올린 충남도가 올해 청렴도 상위권 유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 청렴대책본부는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청렴도 취약분야 대책보고회를 개최 열고, 청렴도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도 감사위원회는 총괄 보고를 통해 보조금 분야와 업무 무지시 공정성 분야(내부)가 도의 청렴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

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 감사위원회는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사·용역, 보조금 등에 대한 '청렴지킴이제'를 운영, 사업별로 계약 단계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 내부적으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업무 도우미 상담 카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업무 공유를 통한 무지시 공정성 분야(내부)가 도의 청렴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

조직문화 분야에서는 간부공무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익명도론편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와 함께 상·하 직급 구분 없는 수평적 좌석 배치 확산, 위계적 조직문화 완화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혁신과제를 발굴, 중점 추진해 내부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감 계획이다. 복지 보조금 분야에서는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민원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민원인과의 친밀도 향상 및 소통 강화에 힘쓰는 한편, 직권 친절·청렴 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향상에도 집중한다.

청렴대책본부장인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청렴도 취약 분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비한다면, 올해 청렴도 역시 지난해 못지않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며 청렴도 상위권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아가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출범한 청렴대책본부는 공사·인사·조직문화·공유재산 등 청렴도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협의하는 컨트론타워로, 본부장인 행정부차와 감사과장, 인재육성과장, 혁신담당관, 종합건설사업소장 등 13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다. 김정환 기자



### 예산군 1일 명예군수 위촉·운영

예산군은 29일 군민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 일환으로 추진된 예산군 1일 명예군수로 관내 고등학교 4명을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군은 50년 만에 신청사로 이 전함에 따라 새로운 청사에서 군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군민소통과 섬김행정을 실현하고자 '1일 명예군수'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2019년 예산지명 1100주년을 맞아 예산군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난 9일

까지 공모 및 학교 추천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다. 예산군 1일 명예군수로는 ▲삼고고등학교 원희수(여·18) ▲삼고고등학교 방송주(남·18)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임경석(남·18) ▲예산에화학여자고등학교 강민경(여·19) 학생이 위촉됐다. 명예군수들은 군정업무 총괄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담당자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예산상설시장의 청년들과 관내 기업체 및 황새공원을 방문하는 등 예산군에서 중심적으로 추진하

고 있는 경제분야와 관광분야 사업장을 둘러보며 명예군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황선봉 군수는 "군정 상황실에서 1일 명예군수들과 환담을 나누며 명예군수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과 예산군의 미래를 위해 좋은 정책 제안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예군수들은 "명예군수 위촉을 계기로 예산군의 문화관광 분야와 교육체육, 그리고 경제분야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군청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알게 되고, 앞으로 우리 군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 제안을 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예산=양성업 기자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b> 2006년 5월 17일 창간 젊은생각·바른신문		
<b>발행·편집인 김현정</b> 전화내선 042)538-3030 구독대란내선 042)538-1602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인쇄처 : 동양인쇄	<b>회장 김성구</b> 기사제보 042)538-1601 광고신청내선 042)538-1603 ☎ 02)6406-5921	<b>논설위원 조정호</b>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팩스02)392-514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제는 전광판 시대**  
**광고문의는 대전투데이로**

**광고문의 : 042-538-3030**